



장애인욕구 및 실태조사

전라남도 농어촌 장애인복지관
미설치지역에 대한 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연구진

- 연구책임 : 유은화(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연구팀 사회복지사)
- 공동연구원 : 정환율(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연구팀 팀장)
- : 서용남(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 : 조 준(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최정민(국립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목 차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절차	3
1) 연구 내용 및 방법	3
2) 연구 추진 내용 및 체계	5
II. 연구방법	10
1. 연구대상	10
2. 조사도구	11
3. 분석방법	13
III. 연구결과	14
1. 일반적 특성	14
2. 건강,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돌봄	27
3.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43
4. 장애청소년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52
5. 성인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66
6. 장년·노년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82
7. 복지시설 /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92
8. 섬 생활 실태	115
9. 전문가 FGI 설문조사 결과(신안)	119
IV. 결론 및 제언	128

참고문헌	132
-------------------	------------

부 록	133
------------------	------------

1. 질문지(곡성)	133
2. 질문지(신안)	141
3. FGI 질문지 기관종사자용 (신안)	146



표목차

〈표 Ⅰ-2-1〉 곡성 학교별 특수학급현황	6
〈표 Ⅰ-2-2〉 신안 학교별 특수학급현황	7
〈표 Ⅰ-2-3〉 신안 학교별 특수학급현황	8
〈표 Ⅱ-1-1〉 표본 수	10
〈표 Ⅱ-2-1〉 측정도구	11
〈표 Ⅲ-1-1〉 성 별	14
〈표 Ⅲ-1-2〉 연령대	15
〈표 Ⅲ-1-3〉 학 력	16
〈표 Ⅲ-1-4〉 결혼상태	17
〈표 Ⅲ-1-5〉 가구유형	18
〈표 Ⅲ-1-6〉 가구원수	19
〈표 Ⅲ-1-7〉 경제상태	20
〈표 Ⅲ-1-8〉 장애등록	21
〈표 Ⅲ-1-9〉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	23
〈표 Ⅲ-1-10〉 장애유형	24
〈표 Ⅲ-1-11〉 장애정도	25
〈표 Ⅲ-1-12〉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항목	26
〈표 Ⅲ-2-1〉 건강상태	28
〈표 Ⅲ-2-2〉 세수, 양치질, 화장실, 목욕, 옷입기 등	29
〈표 Ⅲ-2-3〉 집안에서의 활동이나 이동	30
〈표 Ⅲ-2-4〉 산 책	31
〈표 Ⅲ-2-5〉 물건사기	32
〈표 Ⅲ-2-6〉 외식하기	34
〈표 Ⅲ-2-7〉 영화, 운동경기, 관람 등	35
〈표 Ⅲ-2-8〉 사회활동	36
〈표 Ⅲ-2-9〉 일상생활에서의 타인 도움 필요성	38
〈표 Ⅲ-2-10〉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을 주는 사람 유무	39

〈표 Ⅲ-2-11〉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을 주는 사람	41
〈표 Ⅲ-2-12〉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 충분성	42
〈표 Ⅲ-3-1〉 조기개입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43
〈표 Ⅲ-3-2〉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 이용 및 필요성	45
〈표 Ⅲ-3-3〉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46
〈표 Ⅲ-3-4〉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47
〈표 Ⅲ-3-5〉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49
〈표 Ⅲ-3-6〉 신체기능 향상 이용 및 필요성	50
〈표 Ⅲ-3-7〉 가족지원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51
〈표 Ⅲ-4-1〉 자립준비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53
〈표 Ⅲ-4-2〉 자기결정 훈련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54
〈표 Ⅲ-4-3〉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55
〈표 Ⅲ-4-4〉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56
〈표 Ⅲ-4-5〉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58
〈표 Ⅲ-4-6〉 신체기능 향상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59
〈표 Ⅲ-4-7〉 주말나들이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60
〈표 Ⅲ-4-8〉 방학 기간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61
〈표 Ⅲ-4-9〉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62
〈표 Ⅲ-4-10〉 장애인관련 정책, 정보제공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64
〈표 Ⅲ-4-11〉 가족지원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65
〈표 Ⅲ-5-1〉 자립준비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67
〈표 Ⅲ-5-2〉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68
〈표 Ⅲ-5-3〉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70
〈표 Ⅲ-5-4〉 문화여가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71
〈표 Ⅲ-5-5〉 케어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72
〈표 Ⅲ-5-6〉 가족지원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74
〈표 Ⅲ-5-7〉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75
〈표 Ⅲ-5-8〉 생계비 또는 생필품 지원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77
〈표 Ⅲ-5-9〉 후견지원사업 이용 및 필요성	78
〈표 Ⅲ-5-10〉 장애인관련 정책, 정보제공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80
〈표 Ⅲ-5-11〉 가족지원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81
〈표 Ⅲ-6-1〉 외출지원 이용 및 필요성	82





〈표 Ⅲ-6-2〉 이미용 이용 및 필요성.....	83
〈표 Ⅲ-6-3〉 세탁지원이용 및 필요성.....	84
〈표 Ⅲ-6-4〉 현물지원이용 및 필요성.....	85
〈표 Ⅲ-6-5〉 반찬지원이용 및 필요성.....	86
〈표 Ⅲ-6-6〉 문화여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88
〈표 Ⅲ-6-7〉 의약품 및 방역 관련 물품 지원 이용 및 필요성.....	89
〈표 Ⅲ-6-8〉 상담 및 안부전화이용 및 필요성.....	90
〈표 Ⅲ-6-9〉 복지서비스정보제공이용 및 필요성.....	91
〈표 Ⅲ-7-1〉 장애인복지관이용 및 필요성.....	93
〈표 Ⅲ-7-2〉 주·단기보호시설 이용 및 필요성.....	94
〈표 Ⅲ-7-3〉 그룹홈 이용 및 필요성.....	95
〈표 Ⅲ-7-4〉 재활병·의원 이용 및 필요성.....	96
〈표 Ⅲ-7-5〉 직업재활시설 이용 및 필요성.....	98
〈표 Ⅲ-7-6〉 장애인 전용 체육관 이용 및 필요성.....	99
〈표 Ⅲ-7-7〉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이용 및 필요성.....	100
〈표 Ⅲ-7-8〉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용 및 필요성.....	102
〈표 Ⅲ-7-9〉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용 및 필요성.....	103
〈표 Ⅲ-7-10〉 장애인성인을 위한 교육 시설 이용 및 필요성.....	104
〈표 Ⅲ-7-11〉 점자도서관 이용 및 필요성.....	105
〈표 Ⅲ-7-12〉 수어통역센터 이용 및 필요성.....	107
〈표 Ⅲ-7-13〉 심부름센터 이용 및 필요성.....	108
〈표 Ⅲ-7-14〉 이동지원서비스센터 이용 및 필요성.....	109
〈표 Ⅲ-7-15〉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이용 및 필요성.....	110
〈표 Ⅲ-7-16〉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이용 및 필요성.....	112
〈표 Ⅲ-7-17〉 장애아동보육시설이용 및 필요성.....	113
〈표 Ⅲ-7-18〉 장애인자립지원센터이용 및 필요성.....	114
〈표 Ⅲ-8-1〉 섬생활 불편.....	115
〈표 Ⅲ-8-2〉 섬지역 생활여건 만족도.....	117
〈표 Ⅲ-8-3〉 지역 장애인으로서 생활 어려움.....	118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전라남도는 장애인 비율 7.7%, 고령인구 비율 24.3%로 장애인과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51,392,745명) 대비 장애인(2,652,860) 비율은 5.2%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라남도는 전체인구수(1,811,554명) 대비 장애인(138,595명) 비율은 7.7%로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구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는 전라남도는 만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4.3%로 UN이 정한 초고령 사회 기준을 넘어섰다.
 - 농어촌의 고령화는 잠재적 장애인 유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내 18개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나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 7곳은 서비스 이용제한에 대한 불리함이 발생하고 있어 생활 실태 및 욕구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임
 -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중 7곳(나주시, 곡성군, 화순군, 장흥군, 함평군, 영광군, 신안군)이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이다.
 -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 중 특히 곡성은 전체인구수(30,118명) 대비 장애인(3,321명) 비율 11%로 높은데 반해 현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개소(곡성삼강원, 인정원), 장애인 단체 2개소(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곡성군 지회), 곡성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동악포장재사업소)로 장애인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 농어촌의 혼합형태를 띄고 있는 신안 또한 전체인구수(42,036명) 대비 장애인(4,368명) 비율 10.4%이지만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어통역센터, 전라남도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 신안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신안군지회 등 곡성보다는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으나 이용시설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

○ **전라남도 농어촌 장애인에 대한 학술적 관심 및 문헌자료가 현저히 부족하므로 도립복지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함**

- 국내연구자료에서는 장애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및 장애유형별 또는 농촌과 도시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선행연구들은 다수 있었으나 농어촌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연구자료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인 실천현장 중심형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 특히 전라남도인구소멸지역 2위이며, 장애인거주시설로 편중되어있는 곡성과 농어촌의 혼합형태를 띄고 있는 신안을 선정하여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 장애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 장애인에 대한 생활 실태 및 욕구 조사를 통해 지자체 또는 지역사회 장애인 단체에서 필요한 각종 복지서비스와 복지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전라남도 장애인복지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어촌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자체 및 지역사회 장애인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절차

1)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① 본 연구는 전라남도 농어촌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으며, 이에 농어촌 장애인의 현재 놓여있는 생활실태 파악 및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② 본 조사내용은 장애인 당사자의 일반적특성, 건강 및 돌봄, 경제실태 조사와 더불어 연령별 욕구서비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 및 필요성 등 설문 구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 ③ 곡성군 11개 읍·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확률표본추출방법으로 편의 표집을 활용함
- ④ 신안군 14개 읍·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확률표본추출방법으로 편의 표집을 활용함
- ⑤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곡성군 및 신안군 지자체, 장애인 단체와 협력하여 전라남도 장애인복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 3개년 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

(2) 연구방법

- ① 문헌연구 자료는 농어촌 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 관련 국내연구자료를 분석하여 검토함(여성장애인, 노인장애인, 장애유형별 생활실태 및 섬주민 복지실태, 농촌과 도시 비교연구 등)
- ② 농어촌 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양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내용은 건강 및 돌봄, 연령별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여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및 필요성여부 항목으로 구성함
- ③ 또한 신안군은 전체 14개 읍·면 중 1989년 ‘신안1교(팔금~안좌)’ 개



통을 시작으로 현재 13개 연륙·연도교가 이루어져 있으나 섬 생활에서 불편한 점, 섬 지역의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섬 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 항목을 추가하여 어촌 장애인 생활실태를 파악함

- ④ 특히 곡성군과 달리 신안군은 양적조사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 생활시설 또는 단체 종사자 중심으로 FGI 실시함

2) 연구추진내용 및 체계

(1) 추진내용

일정	추진내용	비고
5월	- 자문교수선정(조준 교수)	동신대학교
6월~7월	- 설문구성자문회의(2회)	동신대학교
7월	- 곡성교육지원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유·초·중·고 15개교 설문 실시	
	- 신안교육지원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유·초·중·고 31개교 설문 실시	
	-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통해 신안군장애인시설(농아인협회, 숲누리주간보호, 꿈이있는집)에서 설문 실시	
	-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8월	- 곡성군 지자체 및 장애인 단체, 시설(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삼강원, 동약포장재사업소)를 방문하여 설문 실시	
	- 신안군은 지체장애인협회, 신안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설문 실시	
	- 신안군은 지역특성 뿐만아니라 장애인 특성상 양적조사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기관 중사자 중심으로 FGI 실시관련 자문회의(2회)	동신대학교
	- 신안군은 4개기관(지체장애인협회, 신안지역자활센터, 천사보금자리, 숲누리주간보호)과 협력하여 FGI 실시	
9월	- 설문관련 데이터 분석(최정민 교수)	국립목포대학교
	- 데이터 분석 관련 회의 진행(2회)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11월~12월	- 전라남도 장애인복지 토론회 개최	
	- 자료집 제작 및 배포	



〈표 1-2-1〉 곡성 학교별 특수학급 현황

〈2023. 3월 기준〉

학교급	학교명	학생수(명)	거주지역
유치원	곡성유치원	2	곡성읍
	옥과초 병설유치원	4	옥과면
소계	2개교	4	
초등학교	곡성중앙초	10	곡성읍
	삼기초	1	삼기면
	석곡초	3	석곡면
	죽곡초	3	죽곡면
	고달초	2	고달면
	옥과초	6	옥과면
	입면초	4	입면
	오산초	2	오산면
소계	8개교	31	
중학교	곡성중	7	곡성읍
	석곡중	2	석곡면
	옥과중	1	옥과면
소계	3개교	10	
고등학교	옥과고	2	옥과면
	전남조리과학고	8	곡성읍
소계	2개교	10	
총계	15개교	55	

출처: <https://gsed.jne.go.kr>

〈표 1-2-2〉 신안 학교별 특수학급 현황 1

〈2023. 3월 기준〉

학교급	학교명	학생수(명)	거주지역
유치원	지도초 병설유치원	2	지도읍
	비금초 병설유치원	1	비금면
	도초초 병설유치원	2	도초면
	안좌초 병설유치원	1	안좌면
	압해초 병설유치원	1	압해읍
소계	5개교	7	
초등학교	지도초	3	지도읍
	임자초	3	임자면
	임자남초	2	
	자은초	2	자은면
	비금초	4	비금면
	비금동초	1	
	도초초	2	도초면
	흑산초	1	흑산면
	흑산초 홍도분교장	2	
	장산초	2	장산면
	안좌초	3	안좌면
	암태초	2	암태면
	압해초	4	압해읍
	압해서초	2	
	압해동초	1	
	신의초	1	신의면
소계	16개교	35	

출처: <https://saed.jn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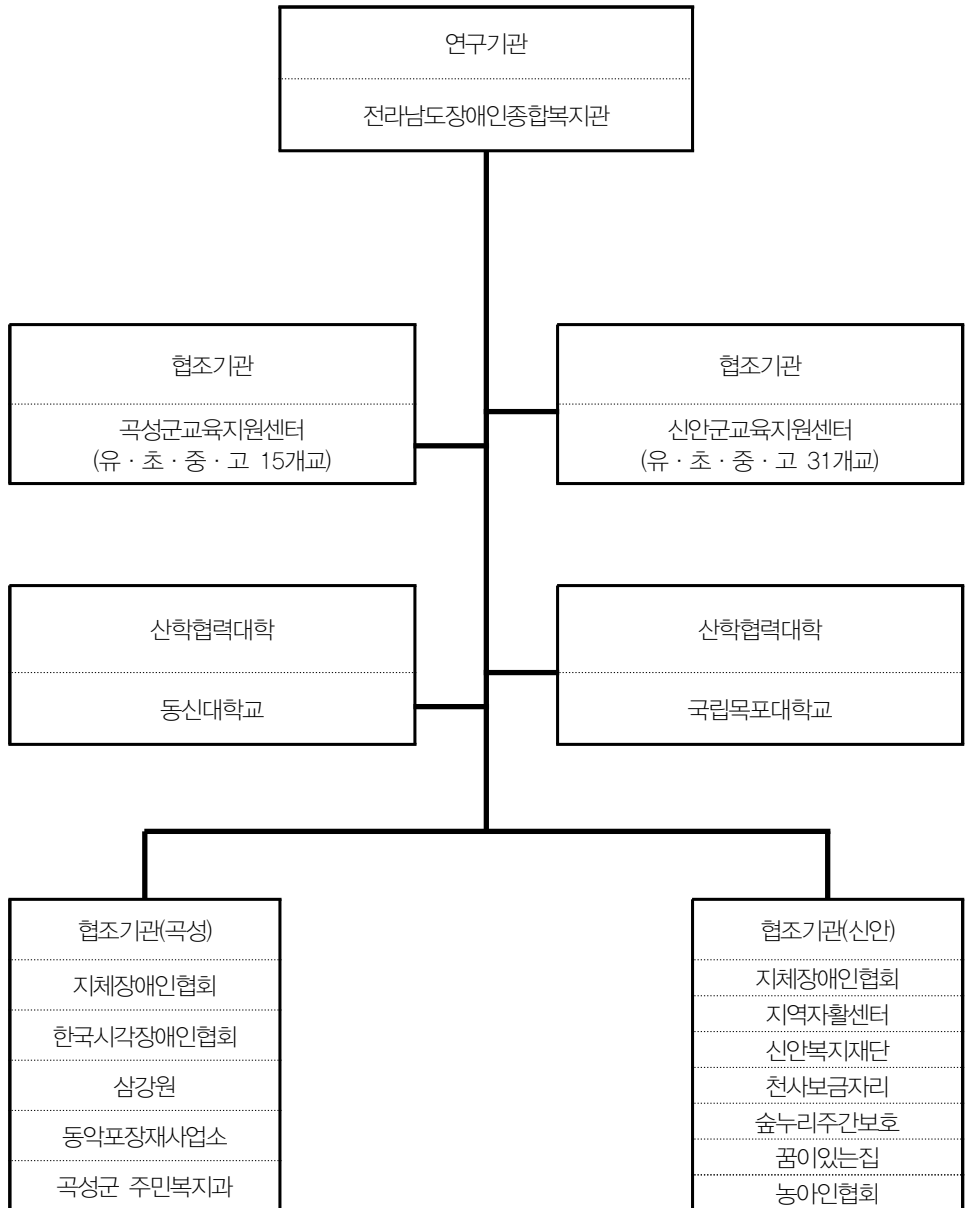
〈표 1-2-3〉 신안 학교별 특수학급 현황II

〈2023. 3월 기준〉

학교급	학교명	학생수(명)	거주지역
중학교	비금중	4	비금면
	압해중	5	압해읍
	지명중	2	지도읍
	증도중	1	증도면
	임자중	1	임자면
	안좌중	1	안좌면
	하의중	1	하의면
	자은중	1	자은면
	흑산중가거도분교장	1	흑산면
소계	9개교	17	
고등학교	안좌고	3	안좌면
	지명고	3	지도읍
	신안해양과학고	2	압해읍
	도초고	2	도초면
	임자고	4	임자면
	하의고	1	하의면
소계	16개교	35	
총계	31개교	72	

출처: <https://saed.jne.go.kr>

② 추진체계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 본 연구는 전라남도 농어촌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라남도 대표적인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인 신안군(어촌), 곡성군(농촌)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설문을 직접 읽고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방식, 대리인이 설문문항을 설명하고 응답을 기입하는 방식 등을 이용하였다. 주요 대리인은 부모, 교사, 활동지도사, 사회복지사, 생활재활교사 등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 수거 후 활용이 어려운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서 사용된 사례는 <표 II-1-1>에 제시된 바와 같음

<표 II-1-1> 표본 수

시군	빈도	퍼센트
어촌지역(신안군)	96명	38.9%
농촌지역(곡성군)	151명	61.1%
합계	247명	100.0%

2. 조사도구

- 본 연구는 전라남도 농어촌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 파악하기 위해 <표 II-2-1>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였음

<표 II-2-1> 측정 도구

구분	조사내용	문항수	비고
건강 및 돌봄	- 건강 및 돌봄: 건강상태, 일상생활에서 타인 도움 필요성,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유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 충분성	5	
	- 일상생활수행능력: 세수, 양치질, 화장실, 목욕, 옷입기 등, 집안에서의 활동이나 이동, 산책(집밖으로의 간단한 이동), 물건사기(쇼핑, 장보기 등), 외식하기, 영화, 운동경기, 관람 등, 친목활동, 취미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7	
	소계	12	
장애아동 복지 욕구	- 이용 여부: 조기개입(조기중재) 프로그램,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 (한글, 숫자 등 선행학습),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또래 관계 형성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 향상, 가족지원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7	
	- 필요성: 조기개입(조기중재) 프로그램,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 (한글, 숫자 등 선행학습),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또래 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 향상, 가족지원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7	
	소계	14	
장애청소년 복지 욕구	- 이용 여부: 자립준비 프로그램, 자기결정 훈련 프로그램,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또래 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 주말 나들이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방학 기간 프로그램(계절학교, 계절 캠프),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 가족 지원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11	
	- 필요성: 자립준비 프로그램, 자기결정 훈련 프로그램,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또래 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 주말 나들이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방학 기간 프로그램(계절학교, 계절 캠프),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 가족 지원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11	
	소계	22	



성인장애인 복지 욕구	- 이용 여부: 자립지원 프로그램(일상교육 등),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문교양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문화여가 프로그램(체험 나들이), 케어서비스(주간 및 단기보호), 가족지원 프로그램(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 등),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생계비 또는 생필품 지원 서비스, 후견지원사업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 가족지원 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11	
	- 필요성: 자립지원 프로그램(일상교육 등),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문교양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문화여가 프로그램(체험 나들이), 케어서비스(주간 및 단기보호), 가족지원 프로그램(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 등),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생계비 또는 생필품 지원 서비스, 후견지원사업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 가족지원 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11	
	소계	22	
장년·노인 장애인 복지 욕구	- 이용 여부: 외출지원, 이미용, 세탁지원, 한물지원, 반찬지원, 문화여가서비스, 의약품 및 방역관련 물품 지원 상담 및 안부전화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9	
	- 필요성: 외출지원, 이미용, 세탁지원, 한물지원, 반찬지원, 문화여가서비스, 의약품 및 방역관련 물품 지원 상담 및 안부전화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9	
	소계	18	
장애인복지 시설 욕구	- 이용 여부: 장애인복지관 주·단기보호시설 그룹홈, 재활병·의원,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전용 체육관 장애인 자동차 표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성인을 위한 교육 시설 점자도서관 수어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이동지원서비스센터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여성장애인기사도우미 장애인동보육시설 장애인자립지원센터	18	
	- 필요성: 장애인복지관 주·단기보호시설 그룹홈 재활병·의원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전용 체육관 장애인 자동차 표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성인을 위한 교육 시설 점자도서관 수어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이동지원서비스센터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여성장애인기사도우미 장애인동보육시설 장애인자립지원센터	18	
	소계	36	
섬생활	- 지역 장애인로서 생활 어려움, 섬생활 불편	2	
	- 섬지역 생활여건 만족도: 환경·경관 자연재해 사고 범죄 안전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경제활동여건 교육여건 문화여가생활여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7	
	소계	9	
일반적 특징	-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여부 가구 유형 가원 수 경제 상태 장애등급 유무 장애등급을 하지 않은 이유 장애유형 장애요인한추적방법	12	
	소계	12	

3. 분석방법

-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7.0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주요변인의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둘째, 주요변인 간 분포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유의성은 X2 검증 검정을 이용하였다. 아울러, 응답자가 복수를 선택한 문항은 다중응답분석을 사용하여, 다중응답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성별

○ 응답자의 성별은 〈표 Ⅲ-1-1〉에 제시된 바와 같음. 특히 지역에 따른 성별의 분포는 $X^2=2.662$, $p=0.103$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이 61.6%, 여성이 3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 지역(신안)은 남성이 68.1%, 여성이 31.9%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촌 지역(곡성)은 남성이 57.5%, 여성이 42.5%를 차지함

〈표 Ⅲ-1-1〉 성별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성별				2.662	0.103
남성	61.6%(146명)	68.1%(62명)	57.5%(84명)		
여성	38.4%(91명)	31.9%(29명)	42.5%(62명)		
전체	100.0%(237명)	100.0%(91명)	100.0%(146명)		

(2) 연령

○ 응답자의 연령은 〈Ⅲ-1-2〉에 제시된 바와 같음. 특히 지역에 따른 연령의 분포는 $\chi^2=16.764$, $p=0.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됨

- 응답자의 연령대의 경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32.2%이고, 그 다음으로 '10대'와 '50대'가 각각 21.5%로 높은 비율로 분포함
- 어촌 지역(신안)은 '60대 이상'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10대'와 '40대'가 각각 21.5%와 10.1%의 비율로 나타남
- 농촌 지역(곡성)은 '60대 이상'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33.3%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대'와 '50대'가 각각 21.4%와 25.4%의 비율을 나타남

〈표 Ⅲ-1-2〉 연령대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연령급간				16.764	0.005
10대	16.6%(34명)	15.2%(12명)	17.5%(22명)		
20대	21.5%(44명)	21.5%(17명)	21.4%(27명)		
30대	3.9%(8명)	7.6%(6명)	1.6%(2명)		
40대	4.4%(9명)	10.1%(8명)	0.8%(1명)		
50대	21.5%(44명)	15.2%(12명)	25.4%(32명)		
60대 이상	32.2%(66명)	30.4%(24명)	33.3%(42명)		
전체	100.0%(205명)	100.0%(79명)	100.0%(126명)		



(3) 학력

○ 응답자의 학력은 〈Ⅲ-1-3〉에 제시된 바와 같음. 특히 지역에 따른 연령의 분포는 $X^2=13.442$, $p=0.632$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됨

-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로 45.2%이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24.6%와 2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됨
- 어촌 지역(신안)은 ‘초등학교 이하’ 학력이 가장 많은 비율로 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26.8%와 25.6%로 보고됨
- 농촌 지역(곡성)은 ‘초등학교 이하’ 학력이 가장 많은 비율로 4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24.0%와 19.9%로 확인됨

〈표 Ⅲ-1-3〉 학력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학력					
초등학교 이하	45.2%(103명)	42.7%(35명)	46.6%(68명)	3.442	0.632
중학교	22.4%(51명)	26.8%(22명)	19.9%(29명)		
고등학교	24.6%(56명)	25.6%(21명)	24.0%(35명)		
대학(2년제)	0.9%(2명)	0.0%(0명)	1.4%(2명)		
대학교(4년제)	1.3%(3명)	1.2%(1명)	1.4%(2명)		
기타	5.7%(13명)	3.7%(3명)	6.8%(10명)		
전체	100.0%(228명)	100.0%(82명)	100.0%(146명)		

2) 결혼 및 경제상태

(1) 결혼상태

○ 응답자의 결혼상태는 〈Ⅲ-1-4〉에 제시된 바와 같음. 특히 지역에 따른 결혼상태의 분포는 $X^2=4.010$, $p=0.4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결혼 상태는 ‘미혼’으로 61.4%이고, 그 다음으로 ‘유배우’가 24.9%를 차지함
- 어촌 지역(신안)에서는 ‘미혼’ 상태가 가장 많은 비율로 6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배우’가 20.5%로 확인됨
- 농촌 지역(곡성)은 ‘미혼’ 상태가 가장 많은 비율로 6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배우’가 27.6%로 보고됨

〈표 Ⅲ-1-4〉 결혼상태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결혼상태					
미혼	61.4%(143명)	63.6%(56명)	60.0%(87명)	4.010	0.405
유배우	24.9%(58명)	20.5%(18명)	27.6%(40명)		
사별	8.2%(19명)	8.0%(7명)	8.3%(12명)		
이혼	5.2%(12명)	8.0%(7명)	3.4%(5명)		
별거	0.4%(1명)	0.0%(0명)	0.7%(1명)		
전체	100.0%(233명)	100.0%(88명)	100.0%(145명)		



(2) 가구유형

○ 응답자의 가구유형은 〈표 Ⅲ-1-5〉에 제시된 바와 같음. 특히 지역에 따른 가구유형의 분포는 $\chi^2=29.529$, $p=0.00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발견됨

- 가구유형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에서 ‘부부(부모)+자녀’가 28.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인가구(본인)’가 26.7%, ‘부부’가 19.5%로 나타남
- 어촌 지역(신안)에서는 ‘부부(부모)+자녀’가 34.8, ‘1인가구(본인)’가 22.5%, ‘부부’가 13.5%로 나타남
- 농촌 지역(곡성)에서는 ‘1인가구(본인)’가 29.3%, ‘부부(부모)+자녀’가 23.8%, ‘부부’가 23.1%로 확인됨

〈표 Ⅲ-1-5〉 가구유형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가구유형				29.529	0.000
1인가구(본인)	26.7%(63명)	22.5%(20명)	29.3%(43명)		
부부	19.5%(46명)	13.5%(12명)	23.1%(34명)		
부부(부모)+자녀	28.0%(66명)	34.8%(31명)	23.8%(35명)		
조부모+부부+자녀	9.7%(23명)	3.4%(3명)	13.6%(20명)		
한부(모)+자녀	8.1%(19명)	12.4%(11명)	5.4%(8명)		
조부모+손자녀	2.5%(6명)	3.4%(3명)	2.0%(3명)		
형제,자매 등	2.1%(5명)	1.1%(1명)	2.7%(4명)		
기타	3.4%(8명)	9.0%(8명)	0.0%(0명)		
전체	100.0%(236명)	100.0%(89명)	100.0%(147명)		

(3) 가구원수

- 응답자의 가구원수는 〈Ⅲ-1-6〉에 제시된 바와 같음. 특히 지역에 따른 가구원수의 분포는 $X^2=.093$, $p=0.76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음
- 가구원수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에서 '3명 이하'의 가구원을 가진 응답자는 72.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4명 이상'의 가구원을 가진 응답자는 27.4%로 나타남
- 어촌 지역(신안)에서는 '3명 이하'의 가구원을 가진 응답자는 71.4%로 다수를 차지하며, '4명 이상'의 가구원을 가진 사람들은 28.6%로 확인됨
- 농촌 지역(곡성)에서는 '3명 이하'의 가구원을 가진 응답자는 73.3%로 다수를 차지하며, '4명 이상'의 가구원을 가진 응답자는 26.7%로 보고됨

〈표 Ⅲ-1-6〉 가구원수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가구원수				.093	0.761
3명 이하	72.6%(167명)	71.4%(60명)	73.3%(107명)		
4명 이상	27.4%(63명)	28.6%(24명)	26.7%(39명)		
전체	100.0%(230명)	100.0%(84명)	100.0%(146명)		



(4) 경제상태

○ 응답자의 경제상태는 〈표 III-1-7〉에 제시된 바와 같음. 특히 지역에 따른 경제상태의 분포는 $X^2=4.516$, $p=0.21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음

- 경제상태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12.3%가 '매우 불만족' 하고, 33.3%는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남. '만족' 하는 응답자는 44.9%로 그 중 9.5%가 '매우 만족' 한다고 보고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14.0%가 '매우 불만족' 하며, 39.8%가 '불만족' 하였으며 '만족' 하는 응답자도 39.8%로, 그 중 6.5%가 '매우 만족' 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 11.3%가 '매우 불만족' 하고, 29.3%가 '불만족' 하며, 48.0%가 '만족' 하고, 11.3%가 '매우 만족' 한다고 보고함
- 농촌 지역(곡성)에서는 만족 응답자가 상당히 많고, 매우 불만족 응답자도 다소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두드러짐

〈표 III-1-7〉 경제상태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경제상태				4.516	0.211
매우 불만족	12.3%(30명)	14.0%(13명)	11.3%(17명)		
불만족	33.3%(81명)	39.8%(37명)	29.3%(44명)		
만족	44.9%(109명)	39.8%(37명)	48.0%(72명)		
매우 만족	9.5%(23명)	6.5%(6명)	11.3%(17명)		
전체	100.0%(243명)	100.0%(93명)	100.0%(150명)		

3) 장애 특징

(1) 장애 등록 유무

○ 응답자의 장애인 등록은 〈표 III-1-8〉에 제시된 바와 같음. 특히 지역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분포는 $\chi^2=.032$, $p=0.858$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음

- 장애인 등록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82.8%가 '장애 등록' 을 하였고, 17.2%가 '장애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보고됨
- 어촌 지역(신안)의 경우, 83.3%의 응답자가 '장애 등록' 을 하였으며, 16.7%가 '장애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 농촌 지역(곡성)은 82.4%의 응답자가 '장애 등록' 을 하였으며, 17.6%가 '장애 미등록' 상태로 보고됨

〈표 III-1-8〉 장애등록

구분	계(수)	농어촌		X2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장애인등록	17.2%(41명)			.032	0.858
장애 미등록	17.2%(41명)	16.7%(15명)	17.6%(26명)		
장애 등록	82.8%(197명)	83.3%(75명)	82.4%(122명)		
전체	100.0%(238명)	100.0%(90명)	100.0%(148명)		



(2)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

○ 응답자의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Ⅲ-1-9〉에 제시된 바와 같음. 특히 지역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의 분포는 $X^2=5.740$, $p=0.332$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음

- **등록 절차에 대해 잘 몰라서** (전체 7.7%, 어촌 6.7%, 농촌 8.3%): 일부 장애인은 등록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보를 얻지 못해서 등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단순하고 분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주변에 장애 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전체 7.7%, 어촌 20.0%):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 상태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사회적 차별 우려'와 관련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함
- **등록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전체 20.5%, 어촌 13.3%, 농촌 25.0%): 일부 장애인은 등록을 해도 어떠한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이는 지원 프로그램의 홍보 및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전체 33.3%, 어촌 33.3%, 농촌 33.3%): 자신을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장애 상태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등록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서** (전체 17.9%, 어촌 13.3%, 농촌 20.8%): 일부 응답자는 등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는 등록 기준 및 범주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와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표 Ⅲ-1-9〉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

구분	계(수)	농어촌		X2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장애인등록하지 않는이유				5,740	0,332
등록 절차에 대해 잘 몰라서	7.7%(3명)	6.7%(1명)	8.3%(2명)		
주변에 장애 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7.7%(3명)	20.0%(3명)	0.0%(0명)		
등록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20.5%(8명)	13.3%(2명)	25.0%(6명)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33.3%(13명)	33.3%(5명)	33.3%(8명)		
등록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서	17.9%(7명)	13.3%(2명)	20.8%(5명)		
기타	12.8%(5명)	13.3%(2명)	12.5%(3명)		
전체	100.0%(39명)	100.0%(15명)	100.0%(24명)		

(3) 장애유형

○ 응답자의 지역에 따른 장애유형은 〈표 Ⅲ-1-10〉에 제시된 바와 같음

- 어촌 지역(신안)의 경우, 등록된 장애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로 54.9%의 장애인이 이 유형에 속하며 그 다음으로 ‘지체장애’가 24.2%로 나타나며, ‘청각장애’가 12.1%, ‘뇌병변장애’와 ‘언어장애’가 각각 3.3%로 확인됨
- 반면 ‘시각장애’, ‘신장장애’, ‘자폐성장애’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남



- 한편 농촌 지역(곡성)의 경우, 어촌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지적장애’ 역시 가장 높은 비율로 약 47.8%의 장애인이 해당 유형에 속함
- ‘시각장애’는 15.7%로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지체장애’는 20.1%로 어촌보다 약간 더 높았으며, 그 외에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자폐성 장애도 비슷한 비율로 보였음
- 특이하게 신장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없다는 결과가 나타남

〈표 III-1-10〉 장애유형

구분	계(수)	농어촌		비고
		어촌지역	농촌지역	
장애유형				다중응답
지체장애	49	24.2%(22명)	20.1%(27명)	
뇌병변장애	11	3.3%(3명)	6.0%(8명)	
시각장애	23	2.2%(2명)	15.7%(21명)	
청각장애	15	12.1%(11명)	3.0%(4명)	
언어장애	8	3.3%(3명)	3.7%(5명)	
신장장애	1	1.1%(1명)	0.0%(0명)	
지적장애	114	54.9%(50명)	47.8%(64명)	
자폐성장애	9	3.3%(3명)	4.5%(6명)	
전체	225	91	134	

(4) 장애정도

- 응답자의 장애정도는 이유는 〈표 III-1-11〉에 제시된 바와 같음. 특히 지역에 따른 장애정도의 분포는 $\chi^2=0.017$, $p=0.896$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지역에서 장애인 중 약 63.4%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

지고 있고, 36.6%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어촌 지역(신안)은 장애인 중 64.0%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를 가지고 있으며, 36.0%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농촌 지역(곡성)은 장애인 중 63.1%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를 가지고 있으며, 36.9%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표 Ⅲ-1-11〉 장애정도

구분	계(수)	농어촌		X2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장애정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63.4%(137명)	64.0%(55명)	63.1%(82명)	0.017	0.896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36.6%(79명)	36.0%(31명)	36.9%(48명)		
전체	100.0%(216명)	100.0%(86명)	100.0%(86명)		

(5)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항목

○ 응답자의 지역에 따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항목은 〈표 Ⅲ-1-12〉에 제시된 바와 같음

- 어촌 지역(신안)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 중에서도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이 장애인들 중 약 13.0%는 재활기관 이용료를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35.2%는 교통비로 인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또한 보육, 교육비가 25.9%, 통신비가 22.2%,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가 16.7%, 보호, 간병비가 7.4%, 부모



- 사후·노후 대 비용이 18.5%, 의료비가 24.1%에서 추가 비용으로 나타남
- 그리고 기타 항목에서 3.7%의 장애인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농촌 지역(곡성)의 경우, 16.0%의 장애인은 재활기관 이용료를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38.7%는 교통비로 인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또한 보육, 교육비가 17.0%, 통신비가 21.7%,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가 19.8%, 보호, 간병비가 23.6%, 부모사후·노후 대비용이 9.4%, 의료비가 50.9%에서 추가 비용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기타 항목에서 6.6%의 장애인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III-1-12〉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항목

구분	계(수)	농어촌		비고
		어촌지역	농촌지역	
장애로인한추가비용항목				
재활기관이용료	24	13.0%(7명)	16.0%(17명)	다중응답
교통비	60	35.2%(19명)	38.7%(41명)	
보육, 교육비	32	25.9%(14명)	17.0%(18명)	
통신비	35	22.2%(12명)	21.7%(23명)	
장애인보조기기구입및유지비	30	16.7%(9명)	19.8%(21명)	
보호, 간병비	29	7.4%(4명)	23.6%(25명)	
부모사후노후비	20	18.5%(10명)	9.4%(10명)	
의료비	67	24.1%(13명)	50.9%(54명)	
기타	9	3.7%(2명)	6.6%(7명)	
전체	160	54	106	

2. 건강,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돌봄

1) 건강상태

- 응답자의 건강상태는 〈표 III-2-1〉에 제시된 바와 같음. 특히 어촌 지역(신안)과 농촌 지역(곡성)에 따른 건강상태는 $X^2=5.814$, $p=0.213$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됨

- 전체 지역에서 응답자의 건강상태의 경우, ' 좋음' 을 선택한 응답자는 3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매우 좋음' 과 '보통' 을 선택한 응답자는 24.3%로 나타났으며, '나쁨' 과 '매우 나쁨' 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약 16.6%와 1.2%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됨
- 어촌지역(신안)에서 응답자의 건강상태의 경우, ' 좋음' 을 선택한 응답자는 4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매우 좋음' 을 선택한 응답자는 26.0%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보통' 건강상태를 선택한 응답자는 20.8%로 나타났고, '나쁨' 과 '매우 나쁨' 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11.5%와 1.0%로 보고됨
- 농촌지역(곡성)에서 응답자의 건강상태의 경우, ' 좋음' 을 선택한 응답자는 2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보통' 건강상태를 선택한 응답자는 26.5%로 확인되었으며, '매우 좋음' 을 선택한 응답자는 23.2%로 나타났고, '나쁨'과 '매우 나쁨'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19.9%, 1.3%로 확인됨

〈표 III-2-1〉 건강상태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건강상태				5.814	0.213
매우 좋음	24.3%(60명)	26.0%(25명)	23.2%(35명)		
좋음	33.6%(83명)	40.6%(39명)	29.1%(44명)		
보통	24.3%(60명)	20.8%(20명)	26.5%(40명)		
나쁨	16.6%(41명)	11.5%(11명)	19.9%(30명)		
매우 나쁨	1.2%(3명)	1.0%(1명)	1.3%(2명)		
전체	100.0%(247명)	100.0%(96명)	100.0%(151명)		

2) 일상생활수행능력

(1) 일상생활수행능력: 세수, 양치질, 화장실, 목욕, 옷입기 등



○ 응답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세수, 양치질, 화장실, 목욕, 옷입기 등)은 〈표 Ⅲ-2-2〉에 제시된 바와 같음. 특히 어촌지역과 농촌지역에 따른 일상생활수행능력(세수, 양치질, 화장실, 목욕, 옷입기 등)은 $X^2=13.243$, $p=0.004$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음

- 일상 생활 활동 능력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약 47.7%가 해당 활동들을 ‘항상 할 수 있다’ 고 응답하여, 이들은 이러한 활동을 자주 수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또한, 26.8%는 ‘대부분 할 수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19.2%는 ‘때때로 할 수 있다’ 고 응답한 반면에 ‘거의 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6.3%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들 중에서는 60.2%가 해당 활동들을 ‘항상 할 수 있다’ 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또한, 25.8%가 ‘대부분 할 수 있다’ 라고 응답하였고 ‘때때로 할 수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9.7%로 확인되었으며, ‘거의 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4.3%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됨
- 반면에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들 중에서는 39.7%가 해당 활동들을 ‘항상 할 수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27.4%가 ‘대부분 할 수 있다’ 고 답변함
- ‘때때로 할 수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5.3%로 나타났으며, ‘거의 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7.5%로 측정됨

〈표 Ⅲ-2-2〉 일상생활수행능력: 세수, 양치질, 화장실, 목욕, 옷입기 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세수, 양치질, 화장실, 목욕, 옷입기 등				13.243	0.004
거의 할 수 없음	6.3%(15명)	4.3%(4명)	7.5%(11명)		
때때로 할 수 있음	19.2%(46명)	9.7%(9명)	25.3%(37명)		
대부분 할 수 있음	26.8%(64명)	25.8%(24명)	27.4%(40명)		
항상 할 수 있음	47.7%(114명)	60.2%(56명)	39.7%(58명)		
전체	100.0%(239명)	100.0%(93명)	100.0%(146명)		

(2) 일상생활수행능력: 집안에서의 활동이나 이동

- 응답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집안에서의 활동이나 이동)은 〈표 Ⅲ-2-3〉에 제시된 바와 같음. 특히 어촌 지역(신안)과 농촌 지역(곡성)에 따른 일상생활수행능력(집안에서의 활동이나 이동)은 $X^2=16.105$,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음
- 전체 응답자 중 58.9%가 집안에서의 활동이나 이동을 '항상 할 수 있다' 라고 응답하였고 23.3%는 '대부분 할 수 있다' 고 답변함
- '때때로 할 수 있다' 는 12.3%에 그쳤고, '거의 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5.5%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72.5%가 집안에서의 활동이나 이동을 '항상 할 수 있다' 라고 응답하였고 또한, 20.9%는 '대부분 할 수 있다' 고 답변하였으며, '때때로 할 수 있다' 는 3.3%에 그쳤고, '거의 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3.3%로 확인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 50.3%가 집안에서의 활동이나 이동을 '항상 할 수 있다' 고 응답하였고 또한, 24.8%는 '대부분 할 수 있다' 고 답변함
- 아울러 '때때로 할 수 있다' 는 17.9%이고, '거의 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6.9%로 보고됨

〈표 Ⅲ-2-3〉 일상생활수행능력: 집안에서의 활동이나 이동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집안에서의 활동이나 이동				16.105	0.001
거의 할 수 없음	5.5%(13명)	3.3%(3명)	6.9%(10명)		
때때로 할 수 있음	12.3%(29명)	3.3%(3명)	17.9%(26명)		
대부분 할 수 있음	23.3%(55명)	20.9%(19명)	24.8%(36명)		
항상 할 수 있음	58.9%(139명)	72.5%(66명)	50.3%(73명)		
전체	100.0%(236명)	100.0%(91명)	100.0%(145명)		



(3) 일상생활수행능력: 산책(집밖으로의 간단한 이동)

○ 응답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산책)은 〈Ⅲ-2-4〉에 제시된 바와 같음.
특히 어촌 지역(신안)과 농촌 지역(곡성)에 따른 일상수행능력(산책)은 $X^2=13.739$, $p=0.003$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음

- 전체 응답자 중 51.1%가 산책을 '항상 할 수 있다'에 응답하였고, 26.0%는 '대부분 할 수 있다'에 답변하였으며, 13.6%는 '때때로 할 수 있다'라고 나타났고, '거의 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4%로 확인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63.4%가 산책을 '항상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24.7%는 '대부분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6%는 '때때로 할 수 있다'고 응답함
- '거의 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2%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 43.0%가 산책을 '항상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26.8%는 '대부분 할 수 있다', '때때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함
- 아울러 '거의 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3.4%로 나타남

〈표 Ⅲ-2-4〉 일상생활수행능력: 산책(집밖으로의 간단한 이동)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산책(집밖으로의 간단한 이동)					
거의 할 수 없음	9.4%(22명)	3.2%(3명)	13.4%(19명)	13.739	0.003
때때로 할 수 있음	13.6%(32명)	8.6%(8명)	16.9%(24명)		
대부분 할 수 있음	26.0%(61명)	24.7%(23명)	26.8%(38명)		
항상 할 수 있음	51.1%(120명)	63.4%(59명)	43.0%(61명)		
전체	100.0%(235명)	100.0%(93명)	100.0%(142명)		

(4) 일상생활수행능력: 물건사기(쇼핑, 장보기 등)

○ 응답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물건사기)은 〈표-2-5〉에 제시된 바와 같음. 특히 어촌 지역과 농촌 지역에 따른 일상생활수행능력(물건사기)은 $X^2=8.430$, $p=0.038$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음

- 전체 응답자 중 36.3%가 물건사기를 '항상 할 수 있다' 고 응답하였고, 23.9%는 '대부분 할 수 있다' 고 답변함
- 22.2%는 '때때로 할 수 있다' 고 응답하였으나, '거의 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7.5%로, 일부 응답자들은 이러한 활동을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만을 가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46.3%가 물건사기를 '항상 할 수 있다' 고 응답하였고, 23.2%는 '대부분 할 수 있다' 고 답변함
- 18.9%는 '때때로 할 수 있다' 고 응답했고, '거의 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1.6%로 확인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 29.5%가 물건사기를 '항상 할 수 있다' 고 응답하였고, 24.5%는 '대부분 할 수 있다' 고 답변함
- 24.5%는 '때때로 할 수 있다' 고 조사되었고, '거의 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1.6%로 보고됨

〈표 Ⅲ-2-5〉 일상생활수행능력: 물건사기(쇼핑, 장보기 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물건사기(쇼핑, 장보기 등)					
거의 할 수 없음	17.5%(41명)	11.6%(11명)	21.6%(30명)	8.430	0.038
때때로 할 수 있음	22.2%(52명)	18.9%(18명)	24.5%(34명)		
대부분 할 수 있음	23.9%(56명)	23.2%(22명)	24.5%(34명)		
항상 할 수 있음	36.3%(85명)	46.3%(44명)	29.5%(41명)		
전체	100.0%(234명)	100.0%(95명)	100.0%(139명)		



(5) 일상생활수행능력: 외식하기

○ 응답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외식하기)은 〈Ⅲ-2-6〉에 제시된 바와 같음. 특히 어촌 지역과 농촌 지역에 따른 일상생활수행능력(외식하기)은 $X^2=8.258$, $p=0.04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음

- 전체 응답자 중 37.9%가 외식하기를 ‘항상 할 수 있다’ 고 응답하였고, 또한, 21.1%는 ‘대부분 할 수 있다’ 고 답변함
- 24.7%는 ‘때때로 할 수 있다’ 고 응답함. 하지만 ‘거의 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6.3%로, 일부 응답자들은 외식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48.4%가 외식하기를 ‘항상 할 수 있다’ 고 응답하여 이들 응답자는 외식을 자주 즐기거나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또한, 20.9%는 ‘대부분 할 수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18.7%는 ‘때때로 할 수 있다’ 고 답변하였으며, ‘거의 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2.1%로,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들 중 외식하기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 30.9%가 외식하기를 ‘항상 할 수 있다’ 고 응답하였고, 21.3%는 ‘대부분 할 수 있다’ 고 답변함
- 또한 28.7%는 ‘때때로 할 수 있다’ 고 대답하였고, ‘거의 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9.1%로 보고됨

〈표 III-2-6〉 일상생활수행능력: 외식하기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외식하기				8.258	0.041
거의 할 수 없음	16.3%(37명)	12.1%(11명)	19.1%(26명)		
때때로 할 수 있음	24.7%(56명)	18.7%(17명)	28.7%(39명)		
대부분 할 수 있음	21.1%(48명)	20.9%(19명)	21.3%(29명)		
항상 할 수 있음	37.9%(86명)	48.4%(44명)	30.9%(42명)		
전체	100.0%(227명)	100.0%(91명)	100.0%(136명)		

(6) 일상생활수행능력: 영화, 운동경기, 관람 등

○ 응답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영화, 운동경기, 관람 등)은 〈III-2-7〉에 제시된 바와 같음. 특히 어촌 지역과 농촌 지역에 따른 일상생활수행능력(외식하기)은 $X^2=3.618$, $p=0.306$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32.8%가 여가 활동을 ‘항상 할 수 있다’ 고 응답하였고, 23.6%는 ‘때때로 할 수 있다’ 고 답변함
- 18.3%는 ‘대부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거의 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5.3%로, 일부 응답자들은 여가 활동을 제약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39.6%가 여가 활동을 ‘항상 할 수 있다’ 고 답변하였고, 또한, 23.1%는 ‘때때로 할 수 있다’ 고 응답함
- 16.5%는 ‘대부분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거의 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0.9%로 조사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 28.3%가 여가 활동을 ‘항상 할 수 있다’ 고 응답하였고, 23.9%는 ‘때때로 할 수 있다’ 고 답변함
- 19.6%는 ‘대부분 할 수 있다’ 고 응답했고, ‘거의 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8.3%로,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들 중 일부는 여가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표 III-2-7〉 일상생활수행능력: 영화, 운동경기, 관람 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영화, 운동경기 관람 등					
거의 할 수 없음	25.3%(58명)	20.9%(19명)	28.3%(39명)	3.618	0.306
때때로 할 수 있음	23.6%(54명)	23.1%(21명)	23.9%(33명)		
대부분 할 수 있음	18.3%(42명)	16.5%(15명)	19.6%(27명)		
항상 할 수 있음	32.8%(75명)	39.6%(36명)	28.3%(39명)		
전체	100.0%(229명)	100.0%(91명)	00.0%(138명)		

(7) 일상생활수행능력: 사회활동(친목활동, 취미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 응답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친목활동, 취미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은 〈표 III-2-8〉에 제시된 바와 같음. 특히 어촌 지역과 농촌 지역에 따른 일상생활수행능력(친목활동, 취미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은 $X^2=3.909$, $p=0.272$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31.2%가 사회 활동을 '항상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음. 22.6%는 '때때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함
- 16.3%는 '대부분 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거의 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1.2%로, 응답자들 중 일부는 사회 활동을 제약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36.8%가 사회 활동을 '항상 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이들은 다양한 사회 활동을 자주 즐기거나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 또한, 23.0%는 '때때로 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13.8%는 '대부분 할 수 있다'고 답변함
- 아울러 '거의 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6.4%로,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들 중 일부는 사회 활동을 제약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 25.4%가 사회 활동을 '항상 할 수 있다'

- 고 보고하였고, 22.4%는 ‘때때로 할 수 있다’ 고 응답함
- 17.9%는 ‘대부분 할 수 있다’ 고 답변하였으며, ‘거의 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34.3%로, 농촌 지역 응답자들 중 일부는 사회 활동을 제약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표 Ⅲ-2-8〉 일상생활수행능력: 사회활동(친목활동, 취미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구분	계(수)	농어촌		X2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친목활동 취미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거의 할 수 없음	31.2%(69명)	26.4%(23명)	34.3%(46명)	3.909	0.272
때때로 할 수 있음	22.6%(50명)	23.0%(20명)	22.4%(30명)		
대부분 할 수 있음	16.3%(36명)	13.8%(12명)	17.9%(24명)		
항상 할 수 있음	29.9%(66명)	36.8%(32명)	25.4%(34명)		
전체	100.0%(221명)	100.0%(87명)	100.0%(134명)		

3) 돌봄

(1) 일상생활에서 타인 도움 필요성

- 응답자의 일상생활에서 타인 도움 필요성은 〈Ⅲ-2-9〉에 제시된 바와 같음. 특히 어촌 지역과 농촌 지역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타인 도움 필요성은 $X^2=6.943$, $p=0.139$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일상생활에서 타인 도움 필요성에 대해 전체 지역에서 조사된 246명의 응답자 중, 자신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응답자는 20.3%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함
- 또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음’을 선택한 응답자는 17.5%인 것으로 보고됨



- 그러나 33.7%의 응답자들은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함' 을 표현했고, 18.3%는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함' 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함'을 선택한 응답자는 10.2%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됨
- 어촌 지역(신안)에서는 96명의 응답자 중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음' 을 선택한 응답자는 2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농촌 지역(곡성)에서는 150명의 응답자 중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음' 을 선택한 응답자가 20.0%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2-9〉 일상생활에서 타인 도움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일상생활에서 타인 도움 필요성				6.943	0.139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음	20.3%(50명)	21.9%(21명)	19.3%(29명)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없이 혼자 할 수 있음	17.5%(43명)	13.5%(13명)	20.0%(30명)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함	33.7%(83명)	40.6%(39명)	29.3%(44명)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함	18.3%(45명)	12.5%(12명)	22.0%(33명)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함	10.2%(25명)	11.5%(11명)	9.3%(14명)		
전체	100.0%(246명)	100.0%(96명)	100.0%(150명)		

(2)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유무

○ 응답자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유무는 〈Ⅲ-2-10〉에 제시된 바와 같음. 특히 어촌 지역과 농촌 지역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유무는 $\chi^2=.905$, $p=0.34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조사된 244명의 응답자 중, 75.4%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24.6%의 응답자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답변함
- 어촌 지역(신안)에서는 94명의 응답자 중, 78.7%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어촌 지역(신안)에서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 서로간의 지원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반면에 21.3%의 응답자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보고함
- 농촌 지역(곡성)에서는 150명의 응답자 중, 73.3%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26.7%의 응답자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답변함

〈표 Ⅲ-2-10〉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유무

구분	계(수)	농어촌		χ^2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유무					
있다	75.4%(184명)	78.7%(74명)	73.3%(110명)	.905	0.341
없다	24.6%(60명)	21.3%(20명)	26.7%(40명)		
전체	100.0%(244명)	100.0%(94명)	100.0%(150명)		



(3)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 응답자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표 Ⅲ-2-11〉에 제시된 바와 같음. 특히 어촌 지역과 농촌 지역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chi^2=62.319$, $p=0.00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었음

- 전체 응답자 중에서 주요 도움을 주는 사람은 생활재활교사 (20.4%), 배우자 (15.6%), 부모 (32.8%)으로 나타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의 경우, 부모(35.4%)와 활동지원사(22.8%)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재활교사(12.7%)가 높은 비율을 보임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배우자(26.2%)와 생활재활교사(26.2%)가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모 (30.8%)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됨
- 어촌 지역(신안)에서는 생활재활교사와 부모가 높은 비율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활동지도사와 사회복지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농촌 지역(곡성)에서는 배우자와 생활재활교사가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됨

〈표 Ⅲ-2-11〉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구분	계(수)	농어촌		X2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62.319	0.000
배우자	15.6%(29명)	1.3%(1명)	26.2%(28명)		
생활재활교사	20.4%(38명)	12.7%(10명)	26.2%(28명)		
활동지원사	9.7%(18명)	22.8%(18명)	0.0%(0명)		
사회복지사	3.2%(6명)	7.6%(6명)	0.0%(0명)		
요양보호사	2.2%(4명)	1.3%(1명)	2.8%(3명)		
기타	3.8%(7명)	5.1%(4명)	2.8%(3명)		
부모	32.8%(61명)	35.4%(28명)	30.8%(33명)		
자녀(딸·외·남자 포함)	3.8%(7명)	6.3%(5명)	1.9%(2명)		
형제자매	0.5%(1명)	1.3%(1명)	0.0%(0명)		
조부모	3.8%(7명)	2.5%(2명)	4.7%(5명)		
친척	2.2%(4명)	1.3%(1명)	2.8%(3명)		
친구	0.5%(1명)	1.3%(1명)	0.0%(0명)		
이웃	1.6%(3명)	1.3%(1명)	1.9%(2명)		
전체	100.0%(186명)	100.0%(79명)	100.0%(107명)		

(4)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 충분성

○ 응답자의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 충분성은 〈Ⅲ-2-12〉에 제시된 바와 같음. 특히 어촌 지역과 농촌 지역에 따른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 충분성은 $X^2=23.889$, $p=0.00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 충분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0.1%가 도와주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도움을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9.5%가 '충분하다' 고 보고하였음
- 그러나 18.7%가 '부족하다' 라고 응답하였고, '매우 부족하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0.5%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정보는 현재의 지원 체계가 다수의 응답자에게는 충분하다고 인식되지만, 일부 응답자에게는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시사함
- 어촌 지역(신안)에서는 도와주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도움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44.4%가 '매우 충분하다' 고 응답하였고, 24.7%가 '충분하다' 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이는 어촌지역에서의 도움이 상대적으로 만족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을 나타냈으며, 또한 '부족하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6.2%로 낮은 수준임
- 농촌 지역(곡성)에서는 도와주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도움에 대한 응답이 조금 다른 경향을 보임
- '충분하다' 로 응답한 비율이 33.0%로 가장 높았으며, '부족하다' 로 응답한 비율이 27.7%로 높게 나타나 이는 농촌지역에서의 도움에 대한 만족도가 어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시사함



〈표 III-2-12〉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 충분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 충분성					
매우 충분	30.1%(58명)	44.4%(36명)	19.6%(22명)	23.889	0.000
충분	29.5%(57명)	24.7%(20명)	33.0%(37명)		
보통	21.2%(41명)	24.7%(20명)	18.8%(21명)		
부족	18.7%(36명)	6.2%(5명)	27.7%(31명)		
매우 부족	0.5%(1명)	0.0%(0명)	0.9%(1명)		
전체	100.0%(193명)	100.0%(81명)	100.0%(112명)		

3. 장애아동(만 12세 이하)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1) 조기개입(조기중재)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조기개입(조기중재)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은 〈표 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조기개입(조기중재) 프로그램 이용과 필요성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 전체 응답자 중 10.3%가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어촌 지역(신안)에서는 16.7%, 농촌 지역(곡성)에서는 4.8%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71.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별로 어촌 지역(신안)에서도 61.9%, 농촌 지역(곡성)에서는 77.8%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함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확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곡성)에서 이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정보는 지역별 프로그램 개

발 및 서비스 제공에 유용한 지표가 됨

〈표 Ⅲ-3-1〉 지역별, 조기개입(조기중재)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구분	농어촌		계(수)	X2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조기개입(조기중재) 프로그램 이용					
있음	16.7%(3명)	4.8%(1명)	10.3%(4명)	1.492	Q222
없음	83.3%(15명)	95.2%(20명)	89.7%(35명)		
전체	100.0%(18명)	100.0%(21명)	100.0%(39명)		
조기개입(조기중재) 프로그램 필요성					
필요하지 않음	9.5%(2명)	8.3%(3명)	8.8%(5명)	1.968	Q374
보통	28.6%(6명)	13.9%(5명)	19.3%(11명)		
필요함	61.9%(13명)	77.8%(28명)	71.9%(41명)		
전체	100.0%(21명)	100.0%(36명)	100.0%(57명)		

2)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 (한글, 숫자 등 선행학습)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 (한글, 숫자 등 선행학습)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조사 대상 응답자 중 33.3%가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을 이미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나머지 66.7%는 아직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을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어촌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나눠본다면, 어촌 지역(시안)에서도 33.3%가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농촌 지역(곡성)에서도 동일하게 33.3%가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응답자 중 78.9%가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8%이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3%인 것으로 보고됨

- 지역별로, 어촌 지역(신안)에서는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의 필요성이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95.2%가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농촌 지역(곡성)에서도 필요성이 높은 편인데, 69.4%가 해당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응답자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립적인 삶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III-3-2〉 지역별,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 (한글, 숫자 등 선행학습) 이용				.000	1.000
있음	33.3%(13명)	33.3%(6명)	33.3%(7명)		
없음	66.7%(26명)	66.7%(12명)	66.7%(14명)		
전체	100.0%(39명)	100.0%(18명)	100.0%(21명)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 (한글, 숫자 등 선행학습) 필요성				5.429	0.066
필요하지 않음	5.3%(3명)	0.0%(0명)	8.3%(3명)		
보통	15.8%(9명)	4.8%(1명)	22.2%(8명)		
필요함	78.9%(45명)	95.2%(20명)	69.4%(25명)		
전체	100.0%(57명)	100.0%(21명)	100.0%(36명)		

3)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은 〈표 III-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조사 응답자 중 31.6%가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한 경험
이 있으며, 나머지 68.4%는 아직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어촌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나뉘본다면, 어촌 지역(신안)에서는 22.2%가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농촌 지역(곡성)에서는 40.0%가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아직까지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됨
-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응답자 중 69.6%가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5.0%이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4%였음
- 지역별로, 어촌 지역(신안)에서는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61.9%가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4.8%에 불과함
- 농촌 지역(곡성)에서도 필요성이 높은 편이었으며, 74.3%가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이 결과는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어촌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시사함
- 타 영역 협력을 통해 응답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표 III-3-3〉 지역별,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 이용				1.386	Q239
있음	31.6%(12명)	22.2%(4명)	40.0%(8명)		
없음	68.4%(26명)	77.8%(14명)	60.0%(12명)		
전체	100.0%(38명)	100.0%(18명)	100.0%(20명)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 필요성				1.244	Q537
필요하지 않음	5.4%(3명)	4.8%(1명)	5.7%(2명)		
보통	25.0%(14명)	33.3%(7명)	20.0%(7명)		
필요함	69.6%(39명)	61.9%(13명)	74.3%(26명)		
전체	100.0%(56명)	100.0%(21명)	100.0%(35명)		



4)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은 〈Ⅲ-3-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조사 응답자 중 74.4%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나머지 25.6%는 아직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어촌 지역(신안)과 농촌 지역(곡성)으로 나눠본다면, 어촌 지역(신안)에서는 61.1%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농촌 지역(곡성)에서는 85.7%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농촌 지역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보고됨
- 방과 후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응답자 중 73.7%가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4.6%이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자는 1.8%에 불과함
- 지역별로, 어촌 지역(신안)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71.4%가 방과 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4.8%로 보고됨
- 농촌 지역(곡성)에서도 필요성이 높은 편이었으며, 75.0%가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이 결과는 어촌과 농촌 지역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시사함

〈표 Ⅲ-3-4〉 지역별,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				3.077	Q079
있음	74.4%(29명)	61.1%(11명)	85.7%(18명)		
없음	25.6%(10명)	38.9%(7명)	14.3%(3명)		
전체	100.0%(39명)	100.0%(18명)	100.0%(21명)		
방과 후 프로그램 필요성				1.745	Q418
필요하지 않음	1.8%(1명)	4.8%(1명)	0.0%(0명)		
보통	24.6%(14명)	23.8%(5명)	25.0%(9명)		
필요함	73.7%(42명)	71.4%(15명)	75.0%(27명)		
전체	100.0%(57명)	100.0%(21명)	100.0%(36명)		

5) 또래 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또래 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조사 응답자 중 17.9%가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나머지 82.1%는 아직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과 농촌 지역으로 나눠본다면, 어촌 지역(신안)에서는 16.7%가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농촌 지역(곡성)에서는 19.0%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응답자 중 78.9%가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8%이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5.3%인 것으로 확인됨. 지역별로, 어촌 지역(신안)에서는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어촌 지역 응답자 중 85.7%가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하



지 않다는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발견됨. 농촌 지역(곡성)에서도 필요성이 높은 편이었으며, 75.0%가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고함

- 이 결과는 어촌 지역(신안)과 농촌 지역(곡성)에서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크게 나타남
-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인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 III-3-5〉 지역별, 또래 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2	P
		어촌지역	농촌지역		
또래 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이용				.037	Q847
있음	17.9%(7명)	16.7%(3명)	19.0%(4명)		
없음	82.1%(32명)	83.3%(15명)	81.0%(17명)		
전체	100.0%(39명)	100.0%(18명)	100.0%(21명)		
또래 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이용 필요하지 않음	5.3%(3명)	0.0%(0명)	8.3%(3명)	1.990	Q370
보통	15.8%(9명)	14.3%(3명)	16.7%(6명)		
필요함	78.9%(45명)	85.7%(18명)	75.0%(27명)		
전체	100.0%(57명)	100.0%(21명)	100.0%(36명)		

6) 신체기능 향상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신체기능 향상 이용 및 필요성은 〈표 III-3-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23.1%가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한 경험 이 있으며, 나머지 76.9%는 아직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과 농촌 지역으로 나눠본다면, 어촌 지역(신안)에서는 11.1%가

-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농촌 지역(곡성)에서는 33.3%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두 지역 모두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됨
-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응답자 중 68.4%가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4.6%이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7.0%임
 - 지역별로, 어촌 지역(신안)에서는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76.2%가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4.8%로 보고됨
 - 농촌 지역(곡성)에서도 63.9%가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이 결과는 어촌 지역(신안)과 농촌 지역(곡성)에서 필요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보여줌.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과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표 Ⅲ-3-6〉 지역별, 신체기능 향상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신체기능 향상 이용				2.696	Q101
있음	23.1%(9명)	11.1%(2명)	33.3%(7명)		
없음	76.9%(30명)	88.9%(16명)	66.7%(14명)		
전체	100.0%(39명)	100.0%(18명)	100.0%(21명)		
신체기능 향상 필요성				.946	Q623
필요하지 않음	7.0%(4명)	4.8%(1명)	8.3%(3명)		
보통	24.6%(14명)	19.0%(4명)	27.8%(10명)		
필요함	68.4%(39명)	76.2%(16명)	63.9%(23명)		
전체	100.0%(57명)	100.0%(21명)	100.0%(36명)		

7) 가족지원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가족지원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3-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23.1%가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나머지 76.9%는 아직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어촌과 농촌으로 구분하면, 어촌 지역(신안)에서는 22.2%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곡성)에서는 23.8%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양 지역 모두 아직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됨
- 가족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73.7%가 가족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4.6%이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8%에 불과함
- 지역별로, 어촌 지역(신안)에서는 가족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71.4%가 가족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농촌 지역(곡성)에서도 75.0%가 가족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III-3-7〉 지역별, 가족지원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가족지원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이용				.014	Q907
있음	23.1%(9명)	22.2%(4명)	23.8%(5명)		
없음	76.9%(30명)	77.8%(14명)	76.2%(16명)		
전체	100.0%(39명)	100.0%(18명)	100.0%(21명)		
가족지원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필요성				.824	Q662
필요하지 않음	1.8%(1명)	0.0%(0명)	2.8%(1명)		
보통	24.6%(14명)	28.6%(6명)	22.2%(8명)		
필요함	73.7%(42명)	71.4%(15명)	75.0%(27명)		
전체	100.0%(57명)	100.0%(21명)	100.0%(36명)		

4. 장애청소년(만 13세 - 18세 이하)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1) 자립준비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자립준비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자립준비 프로그램 이용과 필요성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총 27명의 응답자가 참여한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3.7%만이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대다수인 96.3%가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10명 중에서도 이용하는 응답자는 10.0%뿐이며, 90.0%가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17명 중에서는 이용하는 응답자가 없으며, 모든 응답자가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59.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2.2%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함
- 어촌 지역(신안)응답자 중 72.7%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 50.0%가 필요하다고 보고함
- 이러한 결과들은 자립준비 프로그램이 더 개선하고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표 Ⅲ-4-1〉 지역별, 자립준비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자립준비 프로그램 이용				1.765	0.184
있음	3.7%(1명)	10.0%(1명)	0.0%(0명)		
없음	96.3%(26명)	90.0%(9명)	100.0%(17명)		
전체	100.0%(27명)	100.0%(10명)	100.0%(17명)		
자립준비 프로그램 필요성				1.595	0.450
필요하지 않음	22.2%(6명)	18.2%(2명)	25.0%(4명)		
보통	18.5%(5명)	9.1%(1명)	25.0%(4명)		
필요함	59.3%(16명)	72.7%(8명)	50.0%(8명)		
전체	100.0%(27명)	100.0%(11명)	100.0%(16명)		

2) 자기결정 훈련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자기결정 훈련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총 27명의 응답자가 참여한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11.1%만이 자기결정 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88.9%가 이용한 적이 없음으로 보고됨
- 구체적으로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10명 중에서도 이용하는 응답자는 10.0%뿐이며, 90.0%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조사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17명 중에서는 11.8%가 이용하고 있으며, 88.2%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조사됨
- 자기결정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7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4.8%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90.9%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 62.5%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결정 훈련 프로그램의 현재 상황과 지역별 차이를 나타내며, 해당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거나 홍보하는 데도

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어촌 지역(신안)에서 자기결정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4-2〉 지역별, 자기결정 훈련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자기결정 훈련 프로그램 이용				.020	Q888
있음	11.1%(3명)	10.0%(1명)	11.8%(2명)		
없음	88.9%(24명)	90.0%(9명)	88.2%(15명)		
전체	100.0%(27명)	100.0%(10명)	100.0%(17명)		
자기결정 훈련 프로그램 필요성				3.528	Q171
필요하지 않음	14.8%(4명)	0.0%(0명)	25.0%(4명)		
보통	11.1%(3명)	9.1%(1명)	12.5%(2명)		
필요함	74.1%(20명)	90.9%(10명)	62.5%(10명)		
전체	100.0%(27명)	100.0%(11명)	100.0%(16명)		

3)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은 〈표 III-4-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33.3%가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20.0%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 41.2%가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7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90.9%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 62.5%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 이러한 결과들은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며, 특히 어촌 지역(신안)에서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됨

〈표 Ⅲ-4-3〉 지역별,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이용				1.271	Q280
있음	33.3%(9명)	20.0%(2명)	41.2%(7명)		
없음	66.7%(18명)	80.0%(8명)	58.8%(10명)		
전체	100.0%(27명)	100.0%(10명)	100.0%(17명)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필요성				3.528	Q171
보통	25.9%(7명)	9.1%(1명)	37.5%(6명)		
필요함	74.1%(20명)	90.9%(10명)	62.5%(10명)		
전체	100.0%(27명)	100.0%(11명)	100.0%(16명)		

4)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은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방과 후 프로그램 필요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전체 응답자 중 44.4%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나머지 55.6%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7.0%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63.0%는 필요하다고 응답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50.0%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50.0%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성 측면에서는 9.1%가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90.9%가 필요하다고 조사됨
- 한편,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 41.2%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58.8%는 이용하지 않았으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56.3%가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43.8%가 필요하다고 보고됨

- 이 결과를 통해 지역별 응답자 간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과 필요성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어촌 지역(신안)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III-4-4〉 지역별,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2	P
		어촌지역	농촌지역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				.199	0.656
있음	44.4%(12명)	50.0%(5명)	41.2%(7명)		
없음	55.6%(15명)	50.0%(5명)	58.8%(10명)		
전체	100.0%(27명)	100.0%(10명)	100.0%(17명)		
방과 후 프로그램 필요성				6.217	0.013
보통	37.0%(10명)	9.1%(1명)	56.3%(9명)		
필요함	63.0%(17명)	90.9%(10명)	43.8%(7명)		
전체	100.0%(27명)	100.0%(11명)	100.0%(16명)		

5) 또래 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또래 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은 〈표 III-4-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14.8%만이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85.2%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전체 응답자 중 74.1%가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필요하지 않는 응답자는 11.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20.0%가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나머지 80.0%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모두가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90.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결과가 도출됨
- 반면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 11.8%만이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대다수인 88.2%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62.5%가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고함



- 농촌과 어촌 지역에서 응답자들의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 이용과 필요성에 관한 차이가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 있는 연구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III-4-5〉 지역별, 또래 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2	P
		어촌지역	농촌지역		
또래 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이용				.338	0.561
있음	14.8%(4명)	20.0%(2명)	11.8%(2명)		
없음	85.2%(23명)	80.0%(8명)	88.2%(15명)		
전체	100.0%(27명)	100.0%(10명)	100.0%(17명)		
또래 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필요성				3.183	0.204
필요하지않음	11.1%(3명)	0.0%(0명)	18.8%(3명)		
보통	14.8%(4명)	9.1%(1명)	18.8%(3명)		
필요함	74.1%(20명)	90.9%(10명)	62.5%(10명)		
전체	100.0%(27명)	100.0%(11명)	100.0%(16명)		

6)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은 〈표 III-4-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에서 22.2%만이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77.8%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7.1%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28.6%가 보통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64.3%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20.0%가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80.0%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촌 지역 응답자 모두가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81.8%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됨
- 한편,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 23.5%가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76.5%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52.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농촌 지역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됨

- 지역별로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 이용과 필요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교육 및 사회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하는 결정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Ⅲ-4-6〉 지역별,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 이용				.045	0.831
있음	22.2%(6명)	20.0%(2명)	23.5%(4명)		
없음	77.8%(21명)	80.0%(8명)	76.5%(13명)		
전체	100.0%(27명)	100.0%(10명)	100.0%(17명)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 필요성				2.845	0.241
필요하지 않음	7.1%(2명)	0.0%(0명)	11.8%(2명)		
보통	28.6%(8명)	18.2%(2명)	35.3%(6명)		
필요함	64.3%(18명)	81.8%(9명)	52.9%(9명)		
전체	100.0%(28명)	100.0%(11명)	100.0%(17명)		

7) 주말 나들이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주말 나들이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4-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매우 적은 비율인 7.4%만이 주말 나들이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인 92.6%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67.9%가 주말 나들이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어촌 지역 응답자 중 10.0%가 주말 나들이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90.0%는 이용하지 않음. 그러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촌



지역 응답자 중 81.8%가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됨

- 한편, 농촌지역 응답자 중 5.9%만이 주말 나들이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94.1%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58.8%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됨

〈표 Ⅲ-4-7〉 지역별, 주말 나들이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2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주말 나들이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이용				.156	0.693
있음	7.4%(2명)	10.0%(1명)	5.9%(1명)		
없음	92.6%(25명)	90.0%(9명)	94.1%(16명)		
전체	100.0%(27명)	100.0%(10명)	100.0%(17명)		
주말 나들이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필요성				2.151	0.341
필요하지 않음	7.1%(2명)	0.0%(0명)	11.8%(2명)		
보통	25.0%(7명)	18.2%(2명)	29.4%(5명)		
필요함	67.9%(19명)	81.8%(9명)	58.8%(10명)		
전체	100.0%(28명)	100.0%(11명)	100.0%(17명)		

8) 방학 기간 프로그램(계절 학교, 계절 캠프)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방학 기간 프로그램(계절 학교, 계절 캠프)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4-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29.6%가 방학 기간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70.4%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55.6%가 방학 기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방학 기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줌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는 50.0%가 방학 기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나머지 50.0%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그리고 필요

- 성에 대해서는 81.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어촌 지역(신안)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음
- 한편,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17.6%만이 방학 기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82.4%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됨. 필요성에 대해서는 50.0%가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37.5%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 어촌 지역(신안)에서 방학 기간 프로그램(계절학교, 계절 캠프)에 대한 높은 필요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표 III-4-8〉 지역별, 방학 기간 프로그램(계절학교, 계절 캠프)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2	P
		어촌지역	농촌지역		
방학 기간 프로그램(계절학교, 계절 캠프) 이용				3.161	0.075
있음	29.6%(8명)	50.0%(5명)	17.6%(3명)		
없음	70.4%(19명)	50.0%(5명)	82.4%(14명)		
전체	100.0%(27명)	100.0%(10명)	100.0%(17명)		
방학 기간 프로그램 (계절학교, 계절 캠프) 필요성				5.645	0.059
필요하지 않음	11.1%(3명)	9.1%(1명)	11.8%(2명)		
보통	33.3%(9명)	9.1%(1명)	50.0%(8명)		
필요함	55.6%(15명)	81.8%(9명)	37.5%(6명)		
전체	100.0%(28명)	100.0%(11명)	100.0%(16명)		

9)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은 〈표 III-4-9〉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18.5%만이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81.5%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59.3%가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여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는 20.0%가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80.0%는 이용하지 않았으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72.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어촌 지역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한편,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17.6%만이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82.4%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50.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농촌 지역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Ⅲ-4-9〉 지역별,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이용				.023	0.879
있음	18.5%(5명)	20.0%(2명)	17.6%(3명)		
없음	81.5%(22명)	80.0%(8명)	82.4%(14명)		
전체	100.0%(27명)	100.0%(10명)	100.0%(17명)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필요성				1.918	0.383
필요하지 않음	7.4%(2명)	9.1%(1명)	6.3%(1명)		
보통	33.3%(9명)	18.2%(2명)	43.8%(7명)		
필요함	59.3%(16명)	72.7%(8명)	50.0%(8명)		
전체	100.0%(27명)	100.0%(11명)	100.0%(16명)		

10)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4-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14.8%만이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85.2%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70.4%가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는 20.0%가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80.0%는 이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63.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어촌 지역(신안)에서도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11.8%만이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88.2%는 이용하지 않았으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75.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농촌 지역에서도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정보는 장애인 관련 서비스와 정책을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표 III-4-10〉 지역별,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제공 서비스 이용				.338	0.561
있음	14.8%(4명)	20.0%(2명)	11.8%(2명)		
없음	85.2%(23명)	80.0%(8명)	88.2%(15명)		
전체	100.0%(27명)	100.0%(10명)	100.0%(17명)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제공 서비스 필요성				.404	0.817
필요하지 않음	7.4%(2명)	9.1%(1명)	6.3%(1명)		
보통	22.2%(6명)	27.3%(3명)	18.8%(3명)		
필요함	70.4%(19명)	63.6%(7명)	75.0%(12명)		
전체	100.0%(27명)	100.0%(11명)	100.0%(16명)		

11) 가족지원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가족지원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은 〈표 III-4-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매우 적은 비율인 3.7%만이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대부분인 96.3%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63.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가족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한편,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는 10.0%가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고, 90.0%는 이용하지 않았으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72.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어촌 지역(신안)에서도 가족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아무도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56.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농촌 지역(곡성)에서도 가족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 III-4-11〉 지역별, 가족지원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가족지원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이용				1.765	0.184
있음	3.7%(1명)	10.0%(1명)	0.0%(0명)		
없음	96.3%(26명)	90.0%(9명)	100.0%(17명)		
전체	100.0%(27명)	100.0%(10명)	100.0%(17명)		
가족지원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필요성				.779	0.678
필요하지 않음	11.1%(3명)	9.1%(1명)	12.5%(2명)		
보통	25.9%(7명)	18.2%(2명)	31.3%(5명)		
필요함	63.0%(17명)	72.7%(8명)	56.3%(9명)		
전체	100.0%(27명)	100.0%(11명)	100.0%(16명)		

5. 성인장애인(만 19세 - 38세)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1) 자립지원 프로그램(일상교육 등)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자립지원 프로그램(일상교육 등)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88.9%가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매우 적은 비율인 11.1%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76.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줌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는 87.5%가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12.5%는 이용하지 않았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72.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어촌 지역에서도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모든 응답자가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100%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이러한 정보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표 Ⅲ-5-1> 지역별, 자립지원 프로그램(일상교육 등)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자립지원 프로그램 이용				.141	0.708
있음	88.9%(8명)	87.5%(7명)	100.0%(1명)		
없음	11.1%(1명)	12.5%(1명)	0.0%(0명)		
전체	100.0%(9명)	100.0%(8명)	100.0%(1명)		
자립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709	0.701
필요하지 않음	15.4%(2명)	18.2%(2명)	0.0%(0명)		
보통	7.7%(1명)	9.1%(1명)	0.0%(0명)		
필요함	76.9%(10명)	72.7%(8명)	100.0%(2명)		
전체	100.0%(13명)	100.0%(11명)	100.0%(2명)		



2)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은 <표 III-5-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88.9%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매우 적은 비율인 11.1%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76.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줌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는 87.5%가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를 이용하고, 12.5%는 이용하지 않았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72.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어촌 지역(신안)에서도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모든 응답자가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를 이용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100%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이러한 정보는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개선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표 III-5-2> 지역별,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이용				.141	0.708
있음	88.9%(8명)	87.5%(7명)	100.0%(1명)		
없음	11.1%(1명)	12.5%(1명)	0.0%(0명)		
전체	100.0%(9명)	100.0%(8명)	100.0%(1명)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필요성				.709	0.701
필요하지 않음	7.7%(1명)	9.1%(1명)	0.0%(0명)		
보통	15.4%(2명)	18.2%(2명)	0.0%(0명)		
필요함	76.9%(10명)	72.7%(8명)	100.0%(2명)		
전체	100.0%(13명)	100.0%(11명)	100.0%(2명)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5-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응답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필요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 중에서 33.3%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나, 66.7%는 이용하지 않았음
- 어촌과 농촌 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25.0%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75.0%는 이용하지 않았음
- 반면, 농촌 지역 응답자 중 100.0%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
- 또한, 응답자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 중 69.2%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7.7%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23.1%는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63.6%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9.1%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27.3%는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는 100.0%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연구결과를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과 필요성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보여주며, 농촌 지역(곡성)에서는 이용률과 필요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Ⅲ-5-3〉 지역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2.250	0.134
있음	33.3%(3명)	25.0%(2명)	100.0%(1명)		
없음	66.7%(6명)	75.0%(6명)	0.0%(0명)		
전체	100.0%(9명)	100.0%(8명)	100.0%(1명)		
평생교육 프로그램 필요성				1.051	0.591
필요하지 않음	7.7%(1명)	9.1%(1명)	0.0%(0명)		
보통	23.1%(3명)	27.3%(3명)	0.0%(0명)		
필요함	69.2%(9명)	63.6%(7명)	100.0%(2명)		
전체	100.0%(13명)	100.0%(11명)	100.0%(2명)		

4) 문화여가 프로그램 (체험, 나들이)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문화여가 프로그램(체험, 나들이)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5-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88.9%가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반면, 11.1%는 이용하지 않았음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87.5%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12.5%는 이용하지 않는 반면,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 100.0%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
- 응답자들은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중 100.0%가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중 7.7%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92.3%는 보통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100.0%가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중 9.1%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90.9%는 보통 필요하다고 답변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도 100.0%가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응답자가 보통 필요하다고 보고됨

- 연구결과를 통해,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이용률이 높고, 응답자들이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III-5-4〉 지역별, 문화여가 프로그램(체험, 나들이)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문화여가 프로그램 이용				.141	0.708
있음	88.9%(8명)	87.5%(7명)	100.0%(1명)		
없음	11.1%(1명)	12.5%(1명)	0.0%(0명)		
전체	100.0%(9명)	100.0%(8명)	100.0%(1명)		
문화여가 프로그램 필요성				.197	0.657
보통	7.7%(1명)	9.1%(1명)	0.0%(0명)		
필요함	92.3%(12명)	90.9%(10명)	100.0%(2명)		
전체	100.0%(13명)	100.0%(11명)	100.0%(2명)		

5) 케어서비스(주간 및 단기보호)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케어서비스(주간 및 단기보호) 이용 및 필요성은 〈표 III-5-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22.2%가 케어서비스를 이용한 반면, 77.8%는 이용하지 않았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25.0%가 케어서비스를 이용하였고, 75.0%는 이용하지 않았음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는 케어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가 없으며, 100.0%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됨
- 응답자들은 케어서비스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응답자 중 100.0%가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중 8.3%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91.7%는 보통 필요하다고 보고됨.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100.0%가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중 10.0%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90.0%는 보통 필요하다고 보고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도 100.0%가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응답자가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됨
- 연구결과를 토대로, 케어서비스 이용률이 낮지만, 응답자들이 케어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Ⅲ-5-5〉 지역별, 케어서비스(주간 및 단기보호)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케어서비스 이용				.321	0.571
있음	22.2%(2명)	25.0%(2명)	0.0%(0명)		
없음	77.8%(7명)	75.0%(6명)	100.0%(1명)		
전체	100.0%(9명)	100.0%(8명)	100.0%(1명)		
케어서비스 필요성				.218	0.640
필요하지 않음	8.3%(1명)	10.0%(1명)	0.0%(0명)		
필요함	91.7%(11명)	90.0%(9명)	100.0%(2명)		
전체	100.0%(12명)	100.0%(10명)	100.0%(2명)		

6) 가족지원 프로그램(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 등)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가족지원 프로그램(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5-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지원 프로그램 이용은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지만, 가족지원 프로그램(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 필요성은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매우 적은 비율인 3.7%만이 가족지원프로그램(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인 96.3%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63.0%가 가족지원프로그램(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응답자들은 가족지원 프로그램(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의 필요성을

-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전체 응답자 중 100.0%가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7.7%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23.1%는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100.0%가 가족지원 프로그램(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9.1%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27.3%는 보통 필요하다고 답변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도 100.0%가 가족지원 프로그램(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지원 프로그램(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의 이용률이 높고, 응답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III-5-6〉 지역별, 가족지원 프로그램(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가족지원 프로그램(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 이용				3.938	0.047
있음	77.8%(7명)	87.5%(7명)	0.0%(0명)		
없음	22.2%(2명)	12.5%(1명)	100.0%(1명)		
전체	100.0%(9명)	100.0%(8명)	100.0%(1명)		
가족지원 프로그램(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 필요성				1.051	0.591
필요하지 않음	7.7%(1명)	9.1%(1명)	0.0%(0명)		
보통	23.1%(3명)	27.3%(3명)	0.0%(0명)		
필요함	69.2%(9명)	63.6%(7명)	100.0%(2명)		
전체	100.0%(13명)	100.0%(11명)	100.0%(2명)		

7)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은 〈표 III-5-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77.8%가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22.2%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는 75.0%가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25.0%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농촌 지역 응답자 중에는 모두가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은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중 100.0%가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중 7.7%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7.7%는 보통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84.6%는 필요하다고 답변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100.0%가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중 9.1%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9.1%는 보통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81.8%는 필요하다고 응답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도 100.0%가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보고함
- 응답자들이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남

〈표 III-5-7〉 지역별,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이용				.321	0.571
있음	77.8%(7명)	75.0%(6명)	100.0%(1명)		
없음	22.2%(2명)	25.0%(2명)	0.0%(0명)		
전체	100.0%(9명)	100.0%(8명)	100.0%(1명)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필요성				.430	0.807
필요하지 않음	7.7%(1명)	9.1%(1명)	0.0%(0명)		
보통	7.7%(1명)	9.1%(1명)	0.0%(0명)		
필요함	84.6%(11명)	81.8%(9명)	100.0%(2명)		
전체	100.0%(13명)	100.0%(11명)	100.0%(2명)		

8) 생계비 또는 생필품 지원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생계비 또는 생필품 지원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5-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55.6%가 생계비 또는 생필품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44.4%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는 50.0%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50.0%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농촌 지역 응답자 중에는 모든 응답자가 생계비 또는 생필품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응답자들은 생계비 또는 생필품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전체 응답자 중 100.0%가 생계비 또는 생필품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중 7.7%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7.7%는 보통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84.6%는 필요하다고 보고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100.0%가 생계비 또는 생필품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중 9.1%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9.1%는 보통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81.8%는 필요하다고 조사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도 100.0%가 생계비 또는 생필품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생계비 또는 생필품 지원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고, 응답자들이 생계비 또는 생필품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남



〈표 Ⅲ-5-8〉 지역별, 생계비 또는 생필품 지원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생계비 또는 생필품 지원 서비스 이용				.900	0.343
있음	55.6%(5명)	50.0%(4명)	100.0%(1명)		
없음	44.4%(4명)	50.0%(4명)	0.0%(0명)		
전체	100.0%(9명)	100.0%(8명)	100.0%(1명)		
생계비 또는 생필품 지원 서비스 필요성				.430	0.807
필요하지 않음	7.7%(1명)	9.1%(1명)	0.0%(0명)		
보통	7.7%(1명)	9.1%(1명)	0.0%(0명)		
필요함	84.6%(11명)	81.8%(9명)	100.0%(2명)		
전체	100.0%(13명)	100.0%(11명)	100.0%(2명)		

9) 후견지원사업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후견지원사업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5-9〉에 제시된 바와 같이, 후견지원사업 이용은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지만, 후견지원사업 필요성은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77.8%가 후견지원사업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22.2%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어촌 지역 응답자 중에서는 87.5%가 해당 사업을 이용하였고, 12.5%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농촌 지역 응답자 중에는 모든 응답자가 후견지원사업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은 후견지원사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전체 응답자 중 100.0%가 후견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23.1%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7.7%는 보통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69.2%는 필요하다고 답변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100.0%가 후견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중 27.3%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9.1%는 보통 필

- 요하다고 생각하며, 63.6%는 필요하다고 답변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도 100.0%가 후견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후견지원사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남

〈표 Ⅲ-5-9〉 지역별, 후견지원사업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후견지원사업 이용				3.938	0.047
있음	77.8%(7명)	87.5%(7명)	0.0%(0명)		
없음	22.2%(2명)	12.5%(1명)	100.0%(1명)		
전체	100.0%(9명)	100.0%(8명)	100.0%(1명)		
후견지원사업 필요성				1.051	0.591
필요하지 않음	23.1%(3명)	27.3%(3명)	0.0%(0명)		
보통	7.7%(1명)	9.1%(1명)	0.0%(0명)		
필요함	69.2%(9명)	63.6%(7명)	100.0%(2명)		
전체	100.0%(13명)	100.0%(11명)	100.0%(2명)		

10)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5-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88.9%가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11.1%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 지역 응답자 중에서는 87.5%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12.5%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에, 농촌 지역 응답자 중에는 모든 응답자가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
- 응답자들은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 전체 응답자 중 92.3%가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7.7%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90.9%가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9.1%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도 100.0%가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들이 많으며, 전반적으로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남

〈표 Ⅲ-5-10〉 지역별,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제공 서비스 이용				.141	0.708
있음	88.9%(8명)	87.5%(7명)	100.0%(1명)		
없음	11.1%(1명)	12.5%(1명)	0.0%(0명)		
전체	100.0%(9명)	100.0%(8명)	100.0%(1명)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제공 서비스 필요성				.197	0.657
필요하지 않음	7.7%(1명)	9.1%(1명)	0.0%(0명)		
필요함	92.3%(12명)	90.9%(10명)	100.0%(2명)		
전체	100.0%(13명)	100.0%(11명)	100.0%(2명)		

11) 가족지원 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가족지원 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5-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77.8%가 가족지원 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 램, 부모교육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22.2%는 이용한 적이 없었음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는 75.0%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25.0%는 이용한 적이 없었으나,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는 모든 응답자가 가족지원 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
 - 응답자들은 가족지원 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전체 응답자 중 84.6%가 가족지원 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15.4%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81.8%가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18.2%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도 100.0%가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가족지원 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을 이용하는 응답자들이 많으며, 전반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냄

〈표 III-5-11〉 지역별, 가족지원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가족지원 프로그램 이용				.321	0.571
있음	77.8%(7명)	75.0%(6명)	100.0%(1명)		
없음	22.2%(2명)	25.0%(2명)	0.0%(0명)		
전체	100.0%(9명)	100.0%(8명)	100.0%(1명)		
가족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430	0.512
필요하지 않음	15.4%(2명)	18.2%(2명)	0.0%(0명)		
필요함	84.6%(11명)	81.8%(9명)	100.0%(2명)		
전체	100.0%(13명)	100.0%(11명)	100.0%(2명)		



6. 장년 ·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1) 외출지원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외출지원 이용 및 필요성은 <표 III-6-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외출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응답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응답자 중 53.0%가 외출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어촌 지역 응답자 중 55.0%가 이용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 응답자 중 52.0%가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 또한,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외출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전체 응답자 중에서 80.8%가 해당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어촌 지역 응답자 중 71.2%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농촌 지역 응답자 중 86.2%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조사됨

<표 III-6-1> 지역별, 외출지원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외출지원 이용				.094	0.759
있음	53.0%(61명)	55.0%(22명)	52.0%(39명)		
없음	47.0%(54명)	45.0%(18명)	48.0%(36명)		
전체	100.0%(115명)	100.0%(40명)	100.0%(75명)		
외출지원 필요성				4.871	0.088
필요하지 않음	8.9%(13명)	13.5%(7명)	6.4%(6명)		
보통	10.3%(15명)	15.4%(8명)	7.4%(7명)		
필요함	80.8%(118명)	71.2%(37명)	86.2%(81명)		
전체	100.0%(146명)	100.0%(52명)	100.0%(94명)		

2) 이미용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이미용 이용 및 필요성은 <표 III-6-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40.9%가 이미용 서비스를 이미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어촌 지역 응답자 중 37.5%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농촌 지역 응답자 중 42.7%가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됨
- 이미용 서비스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전체 응답자 중 86.3%가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4.8%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84.6%가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5.8%는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도 87.2%가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4.3%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함
-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미용 서비스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III-6-2> 지역별, 이미용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이미용 이용				.288	0.591
있음	40.9%(47명)	37.5%(15명)	42.7%(32명)		
없음	59.1%(68명)	62.5%(25명)	57.3%(43명)		
전체	100.0%(115명)	100.0%(40명)	100.0%(75명)		
이미용 필요성				.233	0.890
필요하지 않음	4.8%(7명)	5.8%(3명)	4.3%(4명)		
보통	8.9%(13명)	9.6%(5명)	8.5%(8명)		
필요함	86.3%(126명)	84.6%(44명)	87.2%(82명)		
전체	100.0%(146명)	100.0%(52명)	100.0%(94명)		



3) 세탁지원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세탁지원 이용 및 필요성은 <표 III-6-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39.1%가 세탁지원 서비스를 이미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37.5%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는 40.0%가 세탁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60.0%는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전체 응답자 중에서 세탁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3.4%이고,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2.3%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2%로 나타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 세탁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9%이고,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4%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2.7%로 조사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 세탁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3%이고,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6%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1%로 확인됨

<표 III-6-3> 지역별, 세탁지원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2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세탁지원 이용				.068	0.794
있음	39.1%(45명)	37.5%(15명)	40.0%(30명)		
없음	60.9%(70명)	62.5%(25명)	60.0%(45명)		
전체	100.0%(115명)	100.0%(40명)	100.0%(75명)		
세탁지원 필요성				1.167	0.558
필요하지 않음	3.4%(5명)	1.9%(1명)	4.3%(4명)		
보통	12.3%(18명)	15.4%(8명)	10.6%(10명)		
필요함	83.2%(123명)	82.7%(43명)	85.1%(80명)		
전체	100.0%(146명)	100.0%(52명)	100.0%(94명)		

4) 현물지원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현물지원 이용 및 필요성은 <표 III-6-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40.0%가 현물지원 서비스를 이미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32.5%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 지역 응답자 중에서는 44.0%가 현물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56.0%는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응답자 중에서 현물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비율은 3.4%이고,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3.0%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6%로 조사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 현물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8%이고,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6%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6.5%로 확인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 현물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이고,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9%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1.9%로 보고됨

<표 III-6-4> 지역별, 현물지원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2	P
		어촌지역	농촌지역		
현물지원 이용				1.438	0.231
있음	40.0%(46명)	32.5%(13명)	44.0%(33명)		
없음	60.0%(69명)	67.5%(27명)	56.0%(42명)		
전체	100.0%(115명)	100.0%(40명)	100.0%(75명)		
현물지원 필요성				.844	0.656
필요하지 않음	3.4%(5명)	3.8%(2명)	3.2%(3명)		
보통	13.0%(19명)	9.6%(5명)	14.9%(14명)		
필요함	83.6%(122명)	86.5%(45명)	81.9%(77명)		
전체	100.0%(146명)	100.0%(52명)	100.0%(94명)		



5) 반찬지원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반찬지원 이용 및 필요성은 <표 III-6-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36.5%가 반찬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촌 지역 응답자 중 27.5%, 농촌 지역 응답자 중 41.3%가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중에서 반찬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비율은 8.2%이고,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1.0%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0.8%인 것으로 보고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 반찬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8%이고,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3.5%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2.7%로 조사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 반찬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0.6%이고,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6%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9.8%로 확인됨

<표 III-6-5> 지역별, 반찬지원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반찬지원 이용				2.153	0.142
있음	36.5%(42명)	27.5%(11명)	41.3%(31명)		
없음	63.5%(73명)	72.5%(29명)	58.7%(44명)		
전체	100.0%(115명)	100.0%(40명)	100.0%(75명)		
반찬지원 필요성				2.376	0.305
필요하지 않음	8.2%(12명)	3.8%(2명)	10.6%(10명)		
보통	11.0%(16명)	13.5%(7명)	9.6%(9명)		
필요함	80.8%(118명)	82.7%(43명)	79.8%(75명)		
전체	100.0%(146명)	100.0%(52명)	100.0%(94명)		

6) 문화여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문화여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은 <표 III-6-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화여가서비스 이용은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문화여가서비스 필요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고됨

- 전체 응답자 중 45.2%가 문화여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35.0%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65.0%는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 50.7%가 문화여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49.3%는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중에서 문화여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비율은 7.5%이고,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9%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6%로 조사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 문화여가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3.5%이고,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4%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1.2%로 확인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 문화여가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3%이고,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3%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0.4%로 조사됨

<표 III-6-6> 지역별, 문화여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2	P
		어촌지역	농촌지역		
문화여가서비스 이용				2.585	0.108
있음	45.2%(52명)	35.0%(14명)	50.7%(38명)		
없음	54.8%(63명)	65.0%(26명)	49.3%(37명)		
전체	100%(115명)	100%(40명)	100%(75명)		
문화여가서비스 필요성				9.064	0.011
필요하지 않음	7.5%(11명)	13.5%(7명)	4.3%(4명)		
보통	8.9%(13명)	15.4%(8명)	5.3%(5명)		
필요함	83.6%(122명)	71.2%(37명)	90.4%(85명)		
전체	100%(146명)	100%(52명)	100%(94명)		



7) 의약품 및 방역관련 물품 지원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의약품 및 방역관련 물품 지원 이용 및 필요성은 <표 III-6-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의약품 및 방역관련 물품 지원 이용은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었지만, 의약품 및 방역관련 물품 지원 필요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됨

- 전체 응답자 중 65.2%가 의약품 및 방역관련 물품 지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어촌 지역 응답자 중 82.5%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17.5%는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농촌 지역 응답자 중 56.0%가 의약품 및 방역관련 물품 지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44.0%는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중에서 의약품 및 방역관련 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이며,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1.1%로 조사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8%이고,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9%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4.2%로 확인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이고,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4%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9.4%로 조사됨

<표 III-6-7> 지역별, 의약품 및 방역관련 물품 지원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의약품 및 방역관련 물품지원 이용				8.076	0.004
있음	65.2%(75명)	82.5%(33명)	56.0%(42명)		
없음	34.8%(40명)	17.5%(7명)	44.0%(33명)		
전체	100.0%(115명)	100.0%(40명)	100.0%(75명)		
의약품 및 방역관련 물품지원 필요성				1.993	0.369
필요하지 않음	3.4%(5명)	3.8%(2명)	3.2%(3명)		
보통	5.5%(8명)	1.9%(1명)	7.4%(7명)		
필요함	91.1%(133명)	94.2%(49명)	89.4%(84명)		
전체	100.0%(146명)	100.0%(52명)	100.0%(94명)		

8) 상담 및 안부전화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상담 및 안부전화 이용 및 필요성은 <표 4-6-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담 및 안부전화 이용은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었지만, 상담 및 안부전화 필요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됨

- 전체 응답자 중 53.9%가 상담 및 안부전화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어촌 지역 응답자 중 70.0%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촌 지역 응답자 중 45.3%가 상담 및 안부전화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중에서 상담 및 안부전화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9%이며,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3.7%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7.4%인 것으로 조사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9.6%이고,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7.3%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3.1%로 보고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8.5%이고,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1.7%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9.8%로 확인됨

<표 III-6-8> 지역별, 상담 및 안부전화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상담 및 안부전화 이용				6.388	0.011
있음	53.9%(62명)	70.0%(28명)	45.3%(34명)		
없음	46.1%(53명)	30.0%(12명)	54.7%(41명)		
전체	100.0%(115명)	100.0%(40명)	100.0%(75명)		
상담 및 안부전화 필요성				1.009	0.604
필요하지 않음	8.9%(13명)	9.6%(5명)	8.5%(8명)		
보통	13.7%(20명)	17.3%(9명)	11.7%(11명)		
필요함	77.4%(113명)	73.1%(38명)	79.8%(75명)		
전체	100.0%(146명)	100.0%(52명)	100.0%(94명)		



9)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6-9〉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60.9%가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을 이용 경험이 있고, 39.1%는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 72.5%가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을 이용 경험이 있고, 27.5%는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 54.7%가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을 이용 경험이 있고, 45.3%는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응답자 중에서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이며,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6%로 조사됨
- 어촌 지역 응답자 중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7.7%이고,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6%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2.7%로 확인됨
- 농촌 지역 응답자 중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1%이고,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6%이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7.2%로 조사됨

〈표 Ⅲ-6-9〉 지역별,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2	P
		어촌지역	농촌지역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이용				3.483	0.062
있음	60.9%(70명)	72.5%(29명)	54.7%(41명)		
없음	39.1%(45명)	27.5%(11명)	45.3%(34명)		
전체	100.0%(115명)	100.0%(40명)	100.0%(75명)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필요성				2.637	0.267
필요하지 않음	8.9%(13명)	7.7%(4명)	2.1%(2명)		
보통	13.7%(20명)	9.6%(5명)	10.6%(10명)		
필요함	77.4%(113명)	82.7%(43명)	87.2%(82명)		
전체	100.0%(146명)	100.0%(52명)	100.0%(94명)		

7. 복지 시설/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1) 장애인복지관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상담 및 안부전화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7-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은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었지만, 장애인복지관 필요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됨

- 전체 응답자 중 16.3%가 장애인복지관을 경험해본 적이 있고, 83.7%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어촌 지역(신안)응답자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이용률이 약간 높아 24.4%가 해당 서비스를 경험했고, 75.6%는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됨
- 그러나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하는 비율이 낮아 11.0%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89.0%가 아직까지는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4.7%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4.7%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장애인복지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2.2%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됨
- 마찬가지로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 81.8%가 장애인복지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6.3%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관 관련 서비스 지원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 Ⅲ-7-1〉 지역별, 장애인복지관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장애인복지관 이용				6.119	0.013
있음	16.3%(32명)	24.4%(19명)	11.0%(13명)		
없음	83.7%(164명)	75.6%(59명)	89.0%(105명)		
전체	100.0%(196명)	100.0%(78명)	100.0%(118명)		
장애인복지관 필요성				3.017	0.221
필요하지 않음	4.7%(11명)	2.2%(2명)	6.3%(9명)		
보통	10.6%(25명)	8.6%(8명)	11.9%(17명)		
필요함	84.7%(200명)	89.2%(83명)	81.8%(117명)		
전체	100.0%(236명)	100.0%(93명)	100.0%(143명)		

2) 주·단기보호시설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주·단기보호시설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7-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3.6%가 주·단기보호시설을 경험해본 적이 있고, 96.4%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의 경우, 주·단기보호시설 이용률이 3.8%로 나타났고, 96.2%는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3.4%만 주·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96.6%는 아직까지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주·단기보호시설의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1.1%가 주·단기보호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12.1%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는 67.7%가 주·단기보호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16.1%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농촌 지역 응답자 중에서는 73.4%가 주·단기보호시설의 필요성을 인

- 식하고 있고, 9.4%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됨
- 어촌 및 농촌 지역에서 주·단기보호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주·단기보호시설 서비스를 더 확대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 Ⅲ-7-2〉 지역별, 주·단기보호시설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2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주·단기보호시설 이용				.028	0.866
있음	3.6%(7명)	3.8%(3명)	3.4%(4명)		
없음	96.4%(189명)	96.2%(75명)	96.6%(114명)		
전체	100.0%(196명)	100.0%(78명)	100.0%(118명)		
주·단기보호시설 필요성				2.412	0.299
필요하지 않음	16.1%(15명)	2.2%(2명)	9.4%(13명)		
보통	16.1%(15명)	8.6%(8명)	17.3%(24명)		
필요함	67.7%(63명)	89.2%(83명)	73.4%(102명)		
전체	100.0%(232명)	100.0%(93명)	100.0%(139명)		

3) 그룹홈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그룹홈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7-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2.6%가 그룹홈을 경험해본 적이 있고, 97.4%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어촌 지역 응답자의 경우, 그룹홈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반면에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4.2%가 그룹홈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95.8%는 아직까지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됨
- 또한, 그룹홈의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1.8%가 그룹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13.6%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어촌지역 응답자 중에서는 57.6%,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64.7%가 그룹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이러한 결과들은 그룹홈 이용률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며, 더불어 그룹홈 신설 및 접근성을 개선하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표 Ⅲ-7-3〉 지역별, 그룹홈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그룹홈 이용				3.392	0.066
있음	2.6%(5명)	0.0%(0명)	4.2%(5명)		
없음	97.4%(191명)	100.0%(78명)	95.8%(113명)		
전체	100.0%(196명)	100.0%(78명)	100.0%(118명)		
그룹홈 필요성				2.093	0.351
필요하지 않음	13.6%(31명)	17.4%(16명)	11.0%(15명)		
보통	24.6%(56명)	25.0%(23명)	24.3%(33명)		
필요함	61.8%(141명)	57.6%(53명)	64.7%(88명)		
전체	100.0%(228명)	100.0%(92명)	100.0%(136명)		

4) 재활병·의원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재활병·의원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7-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재활병·의원 이용은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재활병·의원 필요성은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됨

- 전체 응답자 중 17.0%가 재활병·의원을 이용한 적이 있고, 83.0%는 이용한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의 경우, 재활병·의원 이용률은 14.3%로 나타나며, 85.7%는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농촌 지역(곡성)응답자 중에서는 18.8%가 재활병·의원을 이용한적이 있고, 81.2%는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재활병·의원의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8.3%가

재활병·의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8.1%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는 77.4%가 재활병·의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12.9%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78.9%가 재활병·의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4.9%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됨
- 이러한 결과들은 어촌 및 농촌 지역에서 재활병·의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기관은 해당 지역에서의 재활병·의원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확대 할 필요가 있음

〈표 III-7-4〉 지역별, 재활병·의원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2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재활 병·의원 이용				.671	0.413
있음	17.0%(33명)	14.3%(11명)	18.8%(22명)		
없음	83.0%(161명)	85.7%(66명)	81.2%(95명)		
전체	100.0%(194명)	100.0%(77명)	100.0%(117명)		
재활 병·의원 필요성				6.188	0.045
필요하지 않음	8.1%(19명)	12.9%(12명)	4.9%(7명)		
보통	13.6%(32명)	9.7%(9명)	16.2%(23명)		
필요함	78.3%(184명)	77.4%(72명)	78.9%(112명)		
전체	100.0%(225명)	100.0%(93명)	100.0%(142명)		

5) 직업재활시설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직업재활시설 이용 및 필요성은 〈표 III-7-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됨

- 전체 응답자 중 15.5%가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84.5%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의 경우, 직업재활시설 이용률은 9.1%로 나타



났고, 90.9%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됨.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19.7%가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80.3%는 이용한 적이 없음으로 조사됨

- 또한,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7.0%가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7.7%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 지역 응답자 중에서는 77.4%가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12.9%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농촌지역 응답자 중에서는 76.8%가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4.2%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됨
- 이러한 어촌 및 농촌 지역에서 직업재활시설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기관은 해당 지역에서의 직업재활시설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III-7-5〉 지역별, 직업재활시설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직업재활시설 이용				3.967	0.046
있음	15.5%(30명)	9.1%(7명)	19.7%(23명)		
없음	84.5%(164명)	90.9%(70명)	80.3%(94명)		
전체	100.0%(194명)	100.0%(77명)	100.0%(117명)		
직업재활시설 필요성				8.726	0.013
필요하지 않음	7.7%(18명)	12.9%(12명)	4.2%(6명)		
보통	15.3%(36명)	9.7%(9명)	19.0%(27명)		
필요함	77.0%(181명)	77.4%(72명)	76.8%(109명)		
전체	100.0%(235명)	100.0%(93명)	100.0%(142명)		

6)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용 및 필요성은 〈표 III-7-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5.2%가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94.8%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의 경우, 장애인 전용 체육관 이용률은 2.6%로 나타났고, 97.4%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6.8%가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93.2%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의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2.7%가 장애인 전용 체육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9.1%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어촌 지역 응답자 중에서는 71.0%가 장애인 전용 체육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10.8%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됨
- 농촌 지역 응답자 중에서는 73.9%가 장애인 전용 체육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8.0%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들은 어촌 및 농촌 지역에서 장애인 전용 체육관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기관은 해당 지역에서의 장애인 체육 시설을 더 확대하고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III-7-6〉 지역별,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2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장애인 전용 체육관 이용				1.708	0.191
있음	5.2%(10명)	2.6%(2명)	6.8%(8명)		
없음	94.8%(184명)	97.4%(75명)	93.2%(109명)		
전체	100.0%(194명)	100.0%(77명)	100.0%(117명)		
장애인 전용 체육관 필요성				.540	0.763
필요하지 않음	9.1%(21명)	10.8%(10명)	8.0%(11명)		
보통	18.2%(42명)	18.3%(17명)	18.1%(25명)		
필요함	72.7%(168명)	71.0%(66명)	73.9%(102명)		
전체	100.0%(231명)	100.0%(93명)	100.0%(138명)		



7)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7-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22.3%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77.7%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의 경우,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이용률은 27.6%로 나타나며, 72.4%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18.8%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81.2%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0.1%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12.1%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 지역 응답자 중에서는 66.7%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17.2%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농촌 지역 응답자 중에서는 72.5%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8.7%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결과들은 어촌 및 농촌 지역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관련 기관은 해당 지역에서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공 및 홍보를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Ⅲ-7-7〉 지역별,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이용				2.074	0.150
있음	22.3%(43명)	27.6%(21명)	18.8%(22명)		
없음	77.7%(150명)	72.4%(55명)	81.2%(96명)		
전체	100.0%(193명)	100.0%(76명)	100.0%(117명)		
장애인 자동차 표지 필요성				3.815	0.148
필요하지 않음	12.1%(28명)	17.2%(16명)	8.7%(12명)		
보통	17.7%(41명)	16.1%(15명)	18.8%(26명)		
필요함	70.1%(162명)	66.7%(62명)	72.5%(100명)		
전체	100.0%(231명)	100.0%(93명)	100.0%(138명)		

8)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7-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이용은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지만, 지역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필요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고됨

- 전체 응답자 중 29.4%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70.6%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의 경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이용률은 32.9%로 나타나며, 67.1%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27.1%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72.9%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됨
- 또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5.3%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9.8%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는 75.5%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17.0%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75.2%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5.0%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결과들은 어촌 및 농촌 지역에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기관은 해당 지역에서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제공과 지원을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III-7-8〉 지역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2	P
		어촌지역	농촌지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이용				.743	0.389
있음	29.4%(57명)	32.9%(25명)	27.1%(32명)		
없음	70.6%(137명)	67.1%(51명)	72.9%(86명)		
전체	100.0%(194명)	100.0%(76명)	100.0%(118명)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필요성				14.211	0.001
필요하지 않음	9.8%(23명)	17.0%(16명)	5.0%(7명)		
보통	14.9%(35명)	7.4%(7명)	19.9%(28명)		
필요함	75.3%(177명)	75.5%(71명)	75.2%(106명)		
전체	100.0%(235명)	100.0%(94명)	100.0%(141명)		

9)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용 및 필요성은 〈표 III-7-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용은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지만,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필요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고됨

- 전체 응답자 중 26.9%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73.1%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용률은 30.3%로 나타나며, 69.7%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24.8%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75.2%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2.4%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8.6%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음
- 어촌 지역 응답자 중에서는 71.3%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14.9%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농촌 지역 응답자 중에서는 73.2%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4.3%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됨
- 이러한 결과들은 어촌 및 농촌 지역에서 특수교육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기관은 해당 지역에서의 특수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Ⅲ-7-9〉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용				.702	0.402
있음	26.9%(52명)	30.3%(23명)	24.8%(29명)		
없음	73.1%(141명)	69.7%(53명)	75.2%(88명)		
전체	100%(193명)	100%(76명)	100%(117명)		
특수교육지원센터 필요성				9.439	0.009
필요하지 않음	8.6%(20명)	14.9%(14명)	4.3%(6명)		
보통	19.0%(44명)	13.8%(13명)	22.5%(31명)		
필요함	72.4%(168명)	71.3%(67명)	73.2%(101명)		
전체	100%(232명)	100%(94명)	100%(138명)		

10) 장애인성인을 위한 교육 시설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장애인성인을 위한 교육 시설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7-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별, 장애인성인을 위한 교육 시설은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지만, 지역별, 장애인성인을 위한 교육 시설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고됨

- 전체 응답자 중 4.1%가 장애인 성인을 위한 교육 시설을 이용한 경협이 있고, 95.9%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의 경우, 장애인 성인을 위한 교육 시설 이용률은 2.6%로 나타나며, 97.4%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5.1%가 장애인 성인을 위한 교육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94.9%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장애인 성인을 위한 교육 시설의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3.6%가 해당 교육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10.0%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음
- 어촌 지역 응답자 중에서는 73.1%가 해당 교육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16.1%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됨
- 농촌 지역 응답자 중에서는 73.9%가 해당 교육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5.8%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결과들은 어촌 및 농촌 지역에서 해당 교육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기관은 해당 지역에서의 장애인 성인 교육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III-7-10〉 지역별, 장애인성인을 위한 교육 시설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장애인성인을 위한 교육 시설 이용				.704	0.402
있음	4.1%(8명)	2.6%(2명)	5.1%(6명)		
없음	95.9%(186명)	97.4%(74명)	94.9%(112명)		
전체	100.0%(194명)	100.0%(76명)	100.0%(118명)		
장애인성인을 위한 교육 시설 필요성				9.033	0.011
필요하지 않음	10.0%(23명)	16.1%(15명)	5.8%(8명)		
보통	16.5%(38명)	10.8%(10명)	20.3%(28명)		
필요함	73.6%(170명)	71.3%(68명)	73.9%(102명)		
전체	100.0%(231명)	100.0%(93명)	100.0%(138명)		

11) 점자도서관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점자도서관 이용 및 필요성은 <표 III-7-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1.0%가 점자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99.0%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어촌지역 응답자의 경우, 점자도서관 이용률이 0.0%인 것으로 확인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1.7%가 점자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점자도서관의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2.8%가 해당 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15.7%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는 48.4%가 해당 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20.4%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농촌 지역(곡성)응답자 중에서는 55.9%가 해당 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12.5%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됨
- 어촌 및 농촌 지역에서 해당 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점자도서관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III-7-11> 지역별, 점자도서관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2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점자도서관 이용				1,302	0,254
있음	1.0%(2명)	0.0%(0명)	1.7%(2명)		
없음	99.0%(192명)	100.0%(76명)	98.3%(116명)		
전체	100.0%(194명)	100.0%(76명)	100.0%(118명)		
점자도서관 필요성				2,800	0,247
필요하지 않음	15.7%(36명)	20.4%(19명)	12.5%(17명)		
보통	31.4%(72명)	31.2%(29명)	31.6%(43명)		
필요함	52.8%(121명)	48.4%(45명)	55.9%(76명)		
전체	100.0%(231명)	100.0%(93명)	100.0%(136명)		



12) 수어통역센터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수어통역센터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7-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별, 수어통역센터 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지역별, 수어통역센터 필요성은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11.3%가 수어통역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88.7%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의 경우, 수어통역센터 이용률은 26.3%로 나타나며, 73.7%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단지 1.7%가 수어통역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수어통역센터의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8.7%가 해당 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11.3%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는 64.5%가 해당 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8.6%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54.7%가 해당 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13.1%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됨
- 어촌 및 농촌 지역에서 해당 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수어통역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III-7-12〉 지역별, 수어통역센터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수어통역센터 이용				27.871	0.000
있음	11.3%(22명)	26.3%(20명)	1.7%(2명)		
없음	88.7%(172명)	73.7%(56명)	98.3%(116명)		
전체	100.0%(194명)	100.0%(76명)	100.0%(118명)		
수어통역센터 필요성				2.416	0.299
필요하지 않음	11.3%(26명)	8.6%(8명)	13.1%(18명)		
보통	30.0%(69명)	26.9%(25명)	32.1%(44명)		
필요함	58.7%(135명)	64.5%(60명)	54.7%(75명)		
전체	100.0%(230명)	100.0%(93명)	100.0%(137명)		

13) 심부름센터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심부름센터 이용 및 필요성은 〈표 III-7-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별, 심부름센터 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지역별, 심부름센터 필요성은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6.7%가 심부름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93.3%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지역 응답자의 경우, 심부름센터 이용률은 1.3%로 나타나며, 98.7%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10.3%가 심부름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89.7%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됨
- 또한, 심부름센터의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9.5%가 해당 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9.4%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음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는 68.8%가 해당 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12.9%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70.0%가 해당 센터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있으며, 7.1%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어촌 및 농촌 지역에서 해당 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기관은 해당 지역에서의 심부름센터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III-7-13〉 지역별, 심부름센터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2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심부름센터 이용				5.862	0.015
있음	6.7%(13명)	1.3%(1명)	10.3%(12명)		
없음	93.3%(180명)	98.7%(75명)	89.7%(105명)		
전체	100.0%(193명)	100.0%(76명)	100.0%(117명)		
심부름센터 필요성				2.532	0.282
필요하지 않음	9.4%(22명)	12.9%(12명)	7.1%(10명)		
보통	21.0%(49명)	18.3%(17명)	22.9%(32명)		
필요함	69.5%(162명)	68.8%(64명)	70.0%(98명)		
전체	100.0%(233명)	100.0%(93명)	100.0%(140명)		

14) 이동지원서비스센터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이동지원서비스센터 이용 및 필요성은 〈-7-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37.6%가 이동지원서비스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62.4%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센터 이용률은 39.0%로 나타났고, 61.0%는 이용한 적이 없다고 보고함
- 응답자 중에서는 36.8%가 이동지원서비스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63.2%는 이용한 적이 없다고 조사됨
- 또한, 이동지원서비스센터의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0.8%가 해당 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8.4%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다 보고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는 78.7%가 해당 센터의 필요성을 인

- 식하고 있으며, 12.8%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조사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82.1%가 해당 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5.5%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나타남
 - 이러한 결과들은 이동지원서비스센터 이용과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관련 기관은 해당 지역에서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III-7-14〉 지역별, 이동지원서비스센터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이동지원서비스센터 이용				.097	0.756
있음	37.6%(73명)	39.0%(30명)	36.8%(43명)		
없음	62.4%(121명)	61.0%(47명)	63.2%(74명)		
전체	100%(194명)	100%(77명)	100%(117명)		
이동지원서비스센터 필요성				4.459	0.108
필요하지 않음	8.4%(20명)	12.8%(12명)	5.5%(8명)		
보통	10.9%(26명)	8.5%(8명)	12.4%(18명)		
필요함	80.8%(193명)	78.7%(74명)	82.1%(119명)		
전체	100%(239명)	100%(94명)	100%(145명)		

15)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이용 및 필요성은 〈표 III-7-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별,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역별,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필요성은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됨

- 전체 응답자 중 3.1%가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96.9%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어촌 지역 응답자의 경우,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이용률은 2.6%로 나타났고, 97.4%는 이용한 적이 없다고 보고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3.4%가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96.6%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의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7.1%가 해당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10.4%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는 61.3%가 해당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18.3%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71.0%가 해당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5.1%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기관은 해당 지역에서의 정보화 교육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Ⅲ-7-15〉 지역별,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이용				.095	0.758
있음	3.1%(6명)	2.6%(2명)	3.4%(4명)		
없음	96.9%(187명)	97.4%(74명)	96.6%(113명)		
전체	100.0%(193명)	100.0%(76명)	100.0%(117명)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필요성				10.410	0.005
필요하지 않음	10.4%(24명)	18.3%(17명)	5.1%(7명)		
보통	22.5%(52명)	20.4%(19명)	23.9%(33명)		
필요함	67.1%(155명)	61.3%(57명)	71.0%(98명)		
전체	100.0%(231명)	100.0%(93명)	100.0%(138명)		

16)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7-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별,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역별,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필요성은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됨

- 전체 응답자 중 2.1%가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97.9%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의 경우,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이용률은 1.3%로 나타나며, 98.7%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2.6%가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97.4%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의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0.2%가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10.1%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는 65.6%가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16.1%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73.1%가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6.2%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기관은 해당 지역에서의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III-7-16〉 지역별,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이용				.354	0.552
있음	2.1%(4명)	1.3%(1명)	2.6%(3명)		
없음	97.9%(189명)	98.7%(75명)	97.4%(114명)		
전체	100.0%(193명)	100.0%(76명)	100.0%(117명)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필요성				6.154	0.046
필요하지 않음	10.4%(24명)	16.1%(15명)	6.2%(9명)		
보통	19.7%(47명)	18.3%(17명)	20.7%(30명)		
필요함	67.1%(155명)	65.6%(61명)	73.1%(106명)		
전체	100.0%(231명)	100.0%(93명)	100.0%(145명)		

17) 장애아동보육시설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장애아동보육시설 이용 및 필요성은 〈표 III-7-17〉



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됨

- 전체 응답자 중 4.7%가 장애아동보육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95.3%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지역 응답자의 경우, 장애아동보육시설 이용률은 10.5%로 나타나며, 89.5%는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0.9%가 장애아동보육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99.1%는 이용한 적이 없다고 보고함
- 또한, 장애아동보육시설의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1.4%가 해당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10.3%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는 65.6%가 해당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19.4%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75.2%가 해당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4.3%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됨
-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기관은 해당 지역에서의 장애아동보육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III-7-17〉 지역별, 장애아동보육시설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장애아동보육시설 이용				9.694	0.002
있음	4.7%(9명)	10.5%(8명)	0.9%(1명)		
없음	95.3%(184명)	89.5%(68명)	99.1%(116명)		
전체	100.0%(193명)	100.0%(76명)	100.0%(117명)		
장애아동보육시설 필요성				14.106	0.001
필요하지 않음	10.3%(24명)	19.4%(18명)	4.3%(6명)		
보통	18.4%(43명)	15.1%(14명)	20.6%(29명)		
필요함	71.4%(167명)	65.6%(61명)	75.2%(106명)		
전체	100.0%(234명)	100.0%(93명)	100.0%(141명)		

18)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용 및 필요성

- 응답자의 지역별,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용 및 필요성은 <표 Ⅲ-7-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별,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지역별, 장애인자립지원센터 필요성은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17.5%가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82.5%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어촌지역 응답자의 경우,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용률은 36.4%로 나타나며, 63.6%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5.1%가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94.9%는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함
- 또한, 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9.3%가 해당 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6.8%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 중에서는 78.7%가 해당 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10.6%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됨
-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79.7%가 해당 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4.2%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기관은 해당 지역에서의 장애인자립지원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III-7-18〉 지역별,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용 및 필요성

구분	계(수)	농어촌		X ²	P
		어촌지역	농촌지역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용				31.345	0.000
있음	17.5%(34명)	36.4%(28명)	5.1%(6명)		
없음	82.5%(160명)	63.6%(49명)	94.9%(111명)		
전체	100.0%(194명)	100.0%(77명)	100.0%(117명)		
장애인자립지원센터 필요성				4.702	0.095
필요하지 않음	6.8%(16명)	10.6%(10명)	4.2%(6명)		
보통	13.9%(33명)	10.6%(10명)	16.1%(23명)		
필요함	79.3%(188명)	78.7%(74명)	79.7%(114명)		
전체	100.0%(237명)	100.0%(94명)	100.0%(143명)		

8. 섬생활실태

1) 섬생활 불편

○ 응답자의 섬생활 불편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남. 그 결과는 〈표 III-8-1〉에 제시된 바와 같음

- 교통 불편은 26.3%의 응답자가 가장 큰 문제로 언급했으며, 섬 내에서의 이동이 어렵다는 점이 주요한 고충으로 나타남
- 의료시설 부족도 26.3%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섬에 충분한 의료시설이 부재하는 것이 의료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준 것으로 해석됨
- 또한, 문화, 여가, 체육시설 부족도 20.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섬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과 여가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생활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시사함
- 반면, 생활필수품 조달의 어려움 및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는 비교적 낮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섬에서의 일상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결과는 섬 지역에서의 생활환경과 불편 요소를 파악하는 데 도

움을 주며, 지역 개선 및 정책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됨

〈표 III-8-1〉 섬생활 불편

구분	빈도(명)	퍼센트(%)	비고
교통 불편	31명	26.3%	
생활필수품 조달의 어려움	6명	5.1%	
환경오염	4명	3.4%	
생활비 부담	7명	5.9%	
의료시설(약국, 병원 등) 부족	31명	26.3%	
복지시설(복지관, 상담소 등) 부족	10명	8.5%	
문화·여가·체육시설(영화관, 공연장, 운동장 등) 부족	24명	20.3%	
교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부족	5명	4.2%	
전체	110명	100.0%	

2) 섬지역 생활여건 만족도

○ 응답자의 섬지역 생활여건 만족도는 〈표 III-8-2〉에 제시된 바와 같음

-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응답자 중 39.1%가 전반적인 생활을 '만족'으로 평가했음
- **환경·경관 만족: 환경 및 경관에 대한 만족도:** 전체 응답자 중 65.2%가 '만족'으로 응답하여 환경과 관련된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 **자연재해, 사고, 범죄, 안전 만족:** 39.1%의 응답자가 '만족'으로 응답하였으나, 불만족 응답자도 15.9%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44.9%가 '보통'으로 응답하여 이는 안전과 관련된 측면에서 불만족 및 중립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함
-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만족:** 보건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응답자는 36.2%로 높은 편이지만, 불만족 응답자도 29.0%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함



- **경제활동여건 만족:**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남. '불만족'을 선택한 응답자가 39.1%로 가장 높으며, '만족' 응답자는 24.6%로 낮은 비율을 나타냄
- **교육여건 만족:**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은 편으로 '불만족' 응답자가 40.6%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 응답자는 26.1%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보임
- **문화여가 생활여건 만족:** 문화 및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응답자가 가장 많은 39.7%를 차지하였으며, '만족' 응답자는 27.9%, '불만족' 응답자는 32.4%로 보고됨

〈표 4-8-2〉 섬지역 생활여건 만족도

구분		빈도(명)	퍼센트(%)	비고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불만족	10명	14.5%	
	보통	32명	46.4%	
	만족	27명	39.1%	
	전체	69명	100.0%	
환경·경관 만족	불만족	3명	4.3%	
	보통	21명	30.4%	
	만족	45명	65.2%	
	전체	69명	100.0%	
자연재해, 사고, 범죄, 안전 만족	불만족	11명	15.9%	
	보통	31명	44.9%	
	만족	27명	39.1%	
	전체	69명	100.0%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만족	불만족	20명	29.0%	
	보통	24명	34.8%	
	만족	25명	36.2%	
	전체	69명	100.0%	
경제활동여건 만족	불만족	27명	39.1%	
	보통	25명	36.2%	
	만족	17명	24.6%	
	전체	69명	100.0%	
교육여건 만족	불만족	28명	40.6%	
	보통	23명	33.3%	
	만족	18명	26.1%	
	전체	69명	100.0%	
문화여가 생활여건 만족	불만족	27명	39.7%	
	보통	22명	32.4%	
	만족	19명	27.9%	
	전체	68명	100.0%	



3) 지역 장애인으로서 생활 어려움

○ 응답자의 지역 장애인으로서 생활 어려움은 <표 III-8-3>에 제시된 바와 같음

- 재활치료(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은 3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는 장애인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 및 재활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나타냄
- 경제적 어려움은 19.7%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임
- 이성교제 및 결혼의 어려움은 13.2%로 나타났으며, 장애 상태로 인해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의미함
- 지역 장애인들의 생활 어려움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남. 주위의 차별로 인한 어려움은 11.8%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보고됨
- 정신건강의 어려움은 11.8%로 나타났으며, 장애인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함
- 교육을 받기 어려움은 5.3%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보고됨
- 이러한 결과는 지역 장애인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고려한 정책 및 지원 서비스의 개발과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III-8-3> 지역 장애인으로서 생활 어려움

구분	빈도(명)	퍼센트(%)	비고
주위의 차별로 인한 어려움	9명	11.8%	
경제적 어려움	15명	19.7%	
정신건강의 어려움	9명	11.8%	
이성교제 및 결혼의 어려움	10명	13.2%	
재활치료(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25명	32.9%	
교육을 받기 어려움	4명	5.3%	
기타	4명	5.3%	
전체	76명	100.0%	

9. 전문가 FGI 설문조사 결과

1) 조사의 필요성

- FGI(Focus Group Interview)는 양적 설문조사를 보완하는 기초연구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으며, 연구자의 관심사항에 맞는 맞춤 정보를 개방형 질문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이 미설치되어 있는 농어촌지역 장애인들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양적 질문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지역 장애인시설 근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FGI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실시하였다.

2) 조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자	근무기관	직위	근무기간
A	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8년
B	지역자활센터	실장	17년
C	천사보금자리	상담평가원	7년
D	숲누리주간보호센터	사회재활교사	8개월
E	숲누리주간보호센터	사회재활교사	4년차
F	천사보금자리	생활교사	6년차

(2) 조사 절차

- FGI의 진행과정은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참가자를 선정한 후 제시될 질문 안을 도출하여 배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본 연구는 2차에 걸친 지



역방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지역의 연계된 기관을 통해 사전 질문지를 배포하고 연구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인터뷰 참석 시 적극적으로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설문 내용

- ① 귀하는 평소 농어촌지역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얼마나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② 귀하는 섬지역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어려움을 모두 적어주세요.
- ③ 귀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가지 정도만 응답해 주세요.
- ④ 귀하가 생각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아동(12세 미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중요 순위별로 적어주세요.
- ⑤ 귀하가 생각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청소년(만13세~18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중요 순위별로 적어주세요.
- ⑥ 귀하가 생각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장애인(만19세~38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중요 순위별로 적어주세요.
- ⑦ 귀하가 생각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장년·노인장애인(만39세 이상)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중요 순위별로 적어주세요.
- ⑧ 귀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어떤 장애인복지 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순위별로 5가지만 적어주세요.
- ⑨ 질문항목 외에 섬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귀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자유롭게 적어주세요.

3) 연구 결과

(1) 연구자 A

질문	응답내용
1	집안에서의 활동이나 이동
2	의료시설 부족, 복지시설 부족, 복지관 부재, 문화•여가•체육시설(영화관, 공연장, 운동장 등)부족 교통불편, 생활필수품 조달의 어려움 교육시설 부족, 생활비 부담
3	1) 재활치료, 의료서비스 이용 어려움 2) 이성교제 및 결혼의 어려움 3) 교육환경
4	1순위 : 또래관계 형성,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2순위 : 조기개입(조기중재)프로그램 3순위 :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 4순위 : 협력 프로그램 5순위 : 신체기능 향상 가족지원 프로그램 6순위 : 방과 후 프로그램
5	1순위 : 또래관계 형성,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2순위 :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 3순위 : 자기결정 훈련 프로그램 4순위 : 자립준비 프로그램 5순위 : 주말나들이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6순위 : 가족지원 프로그램 7순위 : 장애인관련 정책 및 정보제공 서비스
6	1순위 : 자립지원 프로그램 2순위 : 평생교육프로그램 3순위 : 직업교육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4순위 : 케어 서비스 5순위 :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서비스 6순위 : 장애인관련 정책 및 정보제공 서비스 7순위 : 문화 여가 프로그램
7	1순위 : 문화 여가 프로그램 2순위 : 세탁 지원 3순위 : 반찬 지원 4순위 : 외출지원 5순위 : 이미용 지원 서비스 6순위 : 현물 지원 7순위 : 의약품 및 방역관련 물품지원 상담 및 안부 전화



질문	응답내용
8	1순위 : 장애인복지관 2순위 : 이동지원서비스센터 3순위 : 재활병원(의원) 4순위 : 심부름센터 5순위 : 주·단기 보호시설
9	응답 없음

(2) 연구자 B

질문	응답내용
1	집안에서의 활동(장보기나 외식, 문화활동에는 한계 가 있음)
2	이동의 어려움(이동권 보장 필요) 문화·여가·체육시설 부족
3	1) 인권침해(차별, 성폭력 노출 등) 2) 의료서비스 부족 3) 경제활동 여건 미비(일자리 부족)
4	1순위 :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 2순위 : 가족지원 프로그램 3순위 :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 4순위 : 또래관계 향상(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5	1순위 : 자기결정 훈련 프로그램 2순위 : 주말나들이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3순위 : 방학기간 프로그램 4순위 : 가족지원 프로그램
6	1순위 : 자립지원 프로그램 2순위 : 직업교육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3순위 : 평생교육프로그램 (인문교양, 문화예술 프로그램)
7	1순위 :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2순위 : 외출지원 및 이미용 3순위 : 문화여가 서비스 4순위 : 의약품 및 방역관련 물품 지원 5순위 : 현물 지원

질문	응답내용
8	1순위 : 그룹홈(사회성 향상을 위해) 2순위 : 심부름센터(이동뿐만 아니라 민원업무보조 및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 3순위 : 이동 서비스 센터
9	복지서비스 다양화로 공급처는 넘치는 반면 사각지대도 비일비재하며 서비스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기에 지자체 재량권 및 결정권을 통한 서비스가 연계되어 서비스 누락을 막고 수혜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함

(3) 연구자 C

질문	응답내용
1	일상생활은 개인의사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여짐. 단 중증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자폐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지원이 없는 경우 상당한 제약이 있음
2	이동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욕구가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 또한 장애 형태에 따라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들의 경우에 사회복지사 또는 활동보조인 등의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이동의 제한이 있다고 보여짐
3	1) 이동수단 부족 2) 의료, 문화,이용시설 부족 3)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들에 대한 지원 부족
4	1순위 : 조기개입 프로그램 2순위 :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 3순위 :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
5	1순위 : 또래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2순위 : 주말나들이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3순위 : 직업교육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6	1순위 : 자립지원 프로그램(일상생활 교육 등) 2순위 : 직업교육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3순위 : 생계비 또는 생필품 지원 서비스, 후견지원사업
7	1순위 : 외출지원 2순위 : 일상생활지원 3순위 : 의료 서비스



질문	응답내용
8	1순위 : 그룹홈 2순위 : 장애인전용 체육관 3순위 :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4순위 : 심부름센터 5순위 : 이동서비스센터
9	당당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감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4) 연구자 D

질문	응답내용
1	세수, 양치질, 화장실, 옷 입기, 산책, 물건 사기 등 가능
2	교통(섬 외 이동)불편, 의료시설, 복지시설, 문화 여가 시설 부족
3	1) 경제적 어려움 2) 재활치료 이용의 어려움 3) 교육환경
4	1순위 :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 2순위 :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 3순위 : 조기개입프로그램 4순위 : 가족지원 프로그램 5순위 : 또래관계형성 프로그램 6순위 : 방과후 프로그램
5	1순위 : 자립준비 프로그램 2순위 :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3순위 :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 4순위 : 가족지원프로그램 5순위 : 자기결정훈련프로그램
6	1순위 : 케어서비스 2순위 : 평생교육 프로그램 3순위 : 자립지원프로그램 4순위 :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5순위 : 생계비 또는 생필품 지원 프로그램
7	1순위 : 의약품 및 방역물품 지원 2순위 :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3순위 : 외출지원 서비스 4순위 : 상담 및 안부전화 5순위 : 문화여가 프로그램

질문	응답내용
8	1순위 : 장애인복지관 2순위 : 이동지원서비스센터 3순위 : 재활병원(의원) 4순위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5순위 : 특수교육지원센터
9	응답 없음

(5) 연구자 E

질문	응답내용
1	세수, 양치질, 화장실, 목욕, 옷입기, 집안에서의 활동이나 이동, 산책(집밖으로의 간단한 이동), 물건사기, (쇼핑, 장보기 등), 외식하기, 영화, 운동경기, 관람 등 친목활동, 취미활동, 자원봉사 활동
2	교통(섬내, 섬외-해상교통)불편 문화·여가·체육시설(영화관, 공연장, 운동장 등) 부족 교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부족
3	1) 주위의 차별로 인한 어려움 2) 정신건강 문제(우울증, 스트레스) 3) 이성 교제 및 결혼의 어려움
4	1순위 :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 2순위 :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3순위 :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 4순위 : 방과 후 프로그램 5순위 : 또래관계형성 프로그램
5	1순위 :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 2순위 : 자기결정 훈련 프로그램 3순위 :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4순위 : 또래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5순위 : 가족지원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6	1순위 :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2순위 :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문교양,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3순위 : 문화여가 프로그램(체험, 나들이) 4순위 : 생계비 또는 생필품 지원 프로그램
7	1순위 : 외출지원 서비스 2순위 : 복지서비스(이미용, 현물지원, 빈찬지원) 3순위 : 문화여가 서비스 4순위 : 의약품 및 방역물품 지원 5순위 : 상담 및 안부전화



질문	응답내용
8	1순위 : 주단기 보호시설 2순위 : 그룹홈 3순위 : 재활병원(의원) 4순위 : 장애인복지관 분관
9	응답 없음

(6) 연구자 F

질문	응답내용
1	대체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나 제한적임
2	섬 지역은 지리적으로 육지 및 대도시와 먼 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고 행정, 유통,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취약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특히 교통의 불편은 외부 자원의 조달 부분에 어려움 및 고립감을 수반할 것이라 생각됨
3	1) '외딴 섬' 과 '장애인' 에 대한 부정적 인식, 차별 2) 지역적인 이유로 인한 복지서비스 제공 소외 3) 지역주민에 대한 장애감수성 교육 미비
4	1순위 :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 및 진단 2순위 : 장애아동 개입 프로그램 3순위 : 보호자(양육자)의 장애인식 개선 4순위 : 보호자에 대한 장애 특성 교육 프로그램
5	1순위 : 장애청소년 당사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2순위 : 권익옹호 프로그램 3순위 : 대도시연계 참여 프로그램
6	1순위 :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2순위 : 섬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3순위 : 염전, 농가 등에 취업 연계
7	1순위 : 의료지원(검진 및 치료 동행) 2순위 : 심리·정서 지원(말벗, 옹호자 역할) 3순위 : 재가방문 서비스(가사 도움, 목욕 서비스)

질문	응답내용
8	1순위 :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미설치 기관 설치 2순위 : 직업 훈련 기관
9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는 장애인 당사자 또한 고령의 나이로 진 입함을 의미. 고령 장애인에 대한 관심 및 지원 체계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IV 결론 및 제언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 본 연구는 전라남도 농어촌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연령별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복지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용 및 필요성을 조사하여 욕구를 파악하고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 하였음
- 다음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주제에 따라 요약하였음

1) 일반적 특성

-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이 61.6%, ‘여성’이 38.4%로 나타남
- 학력을 묻는 질문에 많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두 지역 모두 ‘초등학교 이하’로 나타났고, 어촌지역 42.7%, 농촌지역 46.6%로 나타남
- 결혼상태는 어촌 지역(신안)에서는 미혼 상태가 가장 많은 비율로 63.6%, 농촌 지역(곡성) 또한 미혼 상태가 가장 많은 비율로 60.0%를 차지하고 있었음
- 가구유형으로는 어촌 지역에서는 부부(부모)+자녀가 34.8%를 차지하였으나 농촌 지역(곡성)에서는 1인가구(본인)가 29.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가구원수로는 어촌 지역(신안)에서는 3명 이하의 가구원을 가진 응답자는 71.4%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농촌 지역(곡성) 또한 3명 이하의 가구원을 가진 응답자는 73.3%로 다수를 차지하였음
- 경제상태 만족도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어촌 지역(신안)과 농촌 지역(곡성) 모두 전반적으로 경제상태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음
- 장애인 등록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82.8%가 ‘장애 등록’을 하였고,

17.2%가 ‘장애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33%)와 등록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20.5%), 등록장애에 해당하지 않아서(17.9%)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장애인등록에 대한 정보제공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등록된 장애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로 어촌 지역(신안)의 경우 54.9%의 장애인이 이 유형에 속하며 농촌 지역(곡성)의 경우, 47.8%의 장애인이 지적장애 유형에 해당됨. 그 다음으로 ‘지체장애’가 20%대로 나타났음. 이는 장애인복지관이 신설되거나 이동복지관을 운영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장애인 중 약 63.4%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고, 36.6%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촌지역의 경우 교통비가 35.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보육, 교육비가 25.9%, 의료비가 24.1%, 통신비가 22.2% 순으로 나타남. 농촌지역의 경우 의료비가 50.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교통비 38.7%, 보호, 간병비 23.6%, 통신비 21.7% 순으로 나타남

2) 건강,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돌봄

- 전체 지역에서 응답자의 건강상태의 경우, ‘ 좋음 ’ 을 선택한 응답자는 3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 매우 좋음 ’ 과 ‘ 보통 ’ 을 선택한 응답자는 24.3%로 나타났으며, ‘ 나쁨 ’ 과 ‘ 매우 나쁨 ’ 을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약 16.6%와 1.2%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됨
- 어촌지역과 농촌지역에 따른 일상생활수행능력(세수, 양치질, 화장실, 목욕, 옷입기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음. 어촌 지역(신안) 응답자들 중에서는 60.2%가 해당 활동들을 ‘ 항상 할 수 있다 ’ 고 응답하였으나,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들 중에서는 39.7%가 해당 활동들을 ‘ 항상 할 수 있다 ’ 고 응답하였음. 이는 지역간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음

- 집안에서의 활동이나 이동여부 묻는 질문에서도 어촌지역과 농촌지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촌지역 응답자들은 전체 응답자 중 72.5%가 집안에서의 활동이나 이동을 '항상 할 수 있다' 라고 응답하였고 농촌 지역(곡성)의 경우는 응답자 중 50.3%가 집안에서의 활동이나 이동을 '항상 할 수 있다' 고 응답하였음
- 전체 응답자 중 32.8%가 영화, 운동경기, 관람 등 여가 활동을 '항상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어촌지역은 응답자 중 39.6%, 농촌지역은 28.3%가 여가 활동을 '항상 할 수 있다' 고 응답하였음
- 일상생활에서 타인 도움 필요성에 대해 전체 지역에서 조사된 246명의 응답자 중, 자신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3%,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없이 혼자 할 수 있음 17.5%로 나타났으나, 33.7%의 응답자들은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함'을 표현했고, 18.3%는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함',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함'을 선택한 응답자는 10.2%로 나타나 응답자 중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응답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중 75.4%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24.6%의 응답자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어촌지역과 농촌지역 간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 대해 어촌 지역 응답자의 경우, 부모(35.4%)와 활동지원사(22.8%)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재활교사(12.7%)도 높은 비율을 보임. 농촌 지역 응답자의 경우 역시 부모 (30.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 (26.2%)와 생활재활교사(26.2%)가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어촌 지역 모두 상대적으로 활동지도사와 사회복지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 되었음. 이는 복지관이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부재가 그 원인인 것으로 보임
-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 충분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0.1%가 도와주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도움을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9.5%가 '충분하다' 고 응답하였음. 반면에 '부족하다' 는 응답은 18.7%가, '매우 부족하다' 는 응답은 1.7%로 나타남

족하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0.5%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3) 장애아동(만 12세 이하)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 장애아동(만 12세 이하)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에 관련 하여 7개 문항인 조기개입 프로그램, 기초학습 능력향상 교육,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 신체 기능 향상 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음.
- 분석결과 조기개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89.7%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71.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기초학습 능력향상 교육에 대해서는 66.7%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78.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68.4%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69.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74.4%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73.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82.1%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78.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신체 기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76.9%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68.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가족지원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76.9%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73.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항목간 지역간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음
- 장애아동(만 12세 이하)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에 관련 하여 7개 문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이용 경험 74.4%로 나타나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나,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미이용율이 70%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정보는 지역별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유용한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됨



4) 장애아동(만 13세 - 18세 이하)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 장애청소년(만 13세~18세 이하)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에 관련하여 11개 문항인 자립준비프로그램, 자기결정 훈련 프로그램,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또래 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 주말 나들이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방학기간(계절학교, 계절캠프) 프로그램,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장애인관련 정책 및 정보제공 서비스, 가족지원(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음
- 분석결과 자립준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96.3%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59.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자기결정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88.9%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7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66.7%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7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44.4%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3.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또래 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85.2%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7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77.8%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64.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주말 나들이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92.6%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67.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방학기간(계절학교, 계절캠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70.4%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55.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어촌지역과 농촌지역 응답에 차이가 있었음. 어촌 지역 응답자 중에서는 50.0%가 방학 기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나머지 50.0%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81.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어촌 지역(신안)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음. 반면 농촌 지역(곡성) 응답자 중에서는 17.6%만이 방학 기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82.4%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됨. 필요성에 대해서는 50.0%가 보통 필요하다고 응

답하고, 37.5%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이는 어촌 지역(신안)에서 방학 기간 프로그램(계절학교, 계절 캠프)에 대한 높은 필요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81.5%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59.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지역에서는 장애인식프로그램이 주요 사업으로 지정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장애인관련 정책 및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85.2%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70.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가족지원(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프로그램에 대해서는 96.3%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63.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분석결과 방학기간(계절학교, 계절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외에는 지역간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음. 응답자들은 자기결정 훈련 프로그램과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또래 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장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도서지역과 농촌지역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성인장애인(만 19세 - 38세)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 성인장애인(만 19세~38세)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에 관련하여 11개 문항인 자립지원 (일상생활교육 등)프로그램,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평생교육(인문교양,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문화여가()체험, 나들이)프로그램, 케어서비스(주간 및 단기보호), 가족지원(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생계비 또는 생필품 지원 서비스, 후견지원사업, 장애인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 가족지원(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음. 성인 장애인에 대한 조사의 경우 농촌지역(곡성) 응답률이 저조하여 어촌지역 응답을 중심으로 요약하였음
- 분석결과 자립지원 (일상생활교육 등)프로그램에 대해서는 87.5%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72.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에 대해서는 87.5%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72.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평생교육(인문교양,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74.0%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63.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문화여가(체험, 나들이)프로그램에 대해서는 87.5%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90.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케어서비스(주간 및 단기보호)에 대해서는 75.0%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90.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가족지원(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 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87.5%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3.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75.0%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1.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생계비 또는 생필품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50.0%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1.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후견지원사업에 대해서는 87.5%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3.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장애인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87.5%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90.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가족지원(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75.0%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81.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분석결과 도서지역 응답자들은 문화여가(체험, 나들이)프로그램, 케어서비스(주간 및 단기보호), 장애인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장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이나 후견지원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낮게 나타남. 이는 도서지역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장년·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 장년·노인장애인(만 39세 이상)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에 관련하여 9개 문항인 외출지원, 이미용, 세탁지원, 현물지원, 반찬지원, 문화여가서비스, 의약품 및 방역관련 물품지원, 상담 및 안부전화, 복지서비스 제공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외출지원에 대해서는 53.0%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0.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이미용서비스에 대해서는 59.1%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86.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세탁 지원에 대해서는 60.9%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83.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현물지원에 대해서는 60.0%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83.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반찬지원에 대해서는 63.5%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80.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문화여가서비스에 대해서는 54.8%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83.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문화여가서비스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어촌지역과 농촌지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촌지역 응답자들은 전체 응답자 중 71.5%가 문화여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농촌 지역(곡성)의 경우는 응답자 중 90.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의약품 및 방역관련 물품지원에 대해서는 어촌지역 응답자들은 전체 응답자 중 82.5%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농촌 지역(곡성)의 경우는 응답자 중 56.0%만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지역간 차이가 있었으며,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평균 91.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역간의 차이는 없었음. 상담 및 안부전화에 대해서도 이용경험 응답에서는 지역간 차이가 있었는데 어촌지역 응답자들은 전체 응답자 중 70.0%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농촌 지역(곡성)의 경우는 응답자 중 45.3%만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평균 77.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역간의 차이는 없었음. 복지서비스 제공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60.9%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77.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의약품 및 방역관련 물품지원, 이미용서비스, 물품지원, 세탁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상담 및 안부전화,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낮게 나타남. 이는 도서지역과 농촌지역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7) 복지 시설·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 복지시설·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에 관련하여 18개 문항인 장애인복지관 이용 및 필요성, 주·단기보호시설 이용 및 필요성, 그룹홈 이용 및 필요성, 재활 병·의원 이용 및 필요성, 직업재활시설 이용 및 필요성, 장애인 전용 체육관 이용 및 필요성,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이용 및 필요성,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이용 및 필요성, 특수교육센터 이용 및 필요성, 장애인성인을 위한 교육시설 이용 및 필요성, 점자도서관 이용 및 필요성, 수어통역센터 이용 및 필요성, 심부름센터 이용 및 필요성, 이동지원서비스센터 이용 및 필요성,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이용 및 필요성, 여성가사도우미 이용 및 필요성, 장애아동보육시설 이용 및 필요성,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장애인복지관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16.3%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4.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장애인복지관 이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어촌지역과 농촌지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어촌지역 응답자들은 전체 응답자 중 24.4%가 장애인복지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농촌 지역(곡성)의 경우는 응답자 중 11.0% 만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주·단기보호시설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96.4%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67.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그룹홈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97.4%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61.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재활 병·의원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83.0%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79.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직업재활시설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84.5%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77.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장애인 전용 체육관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94.8%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72.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77.7%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70.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70.6%가 이용경험이 없다

고 응답하였으며, 75.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수교육센터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73.1%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72.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인성인을 위한 교육시설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95.9%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73.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점자도서관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99.0%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52.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어통역센터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88.7%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어촌지역과 농촌지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지역 응답자들은 전체 응답자 중 73.7%가 수어통역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농촌 지역(곡성)의 경우는 응답자 중 98.3%가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신안군에는 수어통역센터가 있으나 곡성군에는 수어통역센터가 없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필요성에 대해서는 58.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지역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심부름센터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93.3%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69.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동지원서비스센터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62.4%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80.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96.9%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67.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가사도우미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97.9%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67.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아동보육시설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95.3%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71.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지역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어촌(신안)지역은 10%정도 이용경험이 있으나, 농촌(곡성)지역은 0.9%만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시설의 유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용에 대해서는 82.5%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79.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용경험에 대해 지역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어촌(신안)지역은 36%정도 이용경험이 있으나, 농촌(곡성)지역은 5.1%만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역시 시설의 유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장애인복지관, 재활병·의원, 이동지원서비스센터 등에 대해서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전자도서관이나 그룹홈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낮게 나타남. 이는 도서지역과 농촌 지역 기관 설치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8) 섬생활실태

- 어촌 지역인 신안에 대해서는 섬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 섬지역의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지역 장애인으로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항목을 추가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섬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으로는 교통불편과 의료시설(약국, 병원 등) 부족이 각각 2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섬지역의 생활여건에 만족도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39.1%가 만족하다고 응답하였음, 환경·경관 만족은 65.2%가 만족하고 있었으며 자연재해, 사고, 범죄, 안전에 대한 만족은 44.9%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음
- 보건 의료 및 복지서비스 만족여부에 대해서는 36.2%가 만족하다고 응답하여 불만족 15.9%보다 높게 나타났음
- 경제활동여건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39.1%(만족 24.6%), 교육여건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40.6%(만족 26.1%), 문화여가 생활여건은 불만족이 39.7%(만족 27.9%)로 나타나 경제활동여건, 교육여건, 문화여가 생활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만족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 장애인으로 생활의 어려움은 재활치료(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이 3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고려한 정책 및 지원 서비스의 개발과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9) 전문가 FGI 설문조사 결과

- 어촌 지역(신안)은 양적 설문조사를 보완하는 기초연구자료로써 활용하고자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으며 신안군지역에 소재하는 장애인 시설 근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내용은 9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교통불편으로 인한 전반적인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고, 장애인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시설의 서비스 부재를 문제점으로 제시하였음.
- 도서지역에 필요한 시설로는 장애인복지관과 그룹홈, 이동서비스센터, 재활병·의원 등을 제시하였음.
- 도서지역의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장애인복지관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이동복지관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제 언

- 본 연구대상인 도서지역(신안)과 농촌지역(곡성)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교통 불편과 접근성의 문제,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의 취약, 보건·복지·의료의 연계체계 미흡, 복지전문인력의 부족과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거기에 더하여 지방화로 인한 복지비용부담의 지속적 증가는 복지 인프라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음.
- 이와 같이 열악한 도서지역과 농촌지역의 복지환경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확대시키지만 지역사회복지자원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지역복지환경으로부터 투입되지 못하여 복지욕구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산출하여 제공하지 못하게 됨. 지역사회욕구는 더욱 강화되어지지만 열악한 지역복지환경은 적절한 복지자원을 공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역복지실태는 보다 열악한 수준으로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함.
- 장애인복지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임. 조사결과 신안군과 곡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열악한 장애인 복지 인프라와 서비스 부재를 경험하고 있음
- 이러한 난관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관심과 의지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수적임
- 특히 도서지역과 낙후된 농촌지역 장애인복지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복지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이번 조사결과와 조사의 시사점을 분석하여 인력과 재원의 확보,그리고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의 확보가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장애인복지관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이동복지관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문헌

- 김인수(2012), 장애인노인의 장애인복지관 이용 저해요인, 한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5, 26-29.
- 최은희(2002), 장애인노인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21-26.
- 조성열(2009), 농어촌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나사렛대학교 4, 1-20.
- 김창표(2017), 전남 섬주민 복지실태 및 욕구 부록 211
- 김문근(2014), 농촌지역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의 환경적 맥락과 한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41권 제2호, 20-29, 60-61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s://kosis.kr>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전라남도 사회복지포털 <https://welfare.jeonnam.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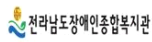
곡성군청 홈페이지 <https://www.gokseong.go.kr>

신안군청 홈페이지 <https://shinan.go.kr>

곡성군교육지원청 <https://gsed.jne.go.kr>

신안군교육지원청 <https://saed.jne.go.kr>

부록(설문지) 곡성



2023년 전라남도 농어촌 장애복지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응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설문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관한 ‘장애인정책 연구 사업’에 선정되어 「전라남도 농어촌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 조사」를 분석하여 농어촌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재해주신 정보와 설문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작성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3. 7.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전라남도 나주시 내영산1길 67

TEL . 061-332-4104 FAX . 061-333-9966

■ 본 설문조사에 응답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인가요?

- _ ① 장애인 당사자 (본인)입니다 → **건강 및 돌봄** 으로 가서 설문조사를 시작하세요.
 _ ② 장애인 당사자 (본인)가 아닙니다 (대리 응답자) → **아래 박스 안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이 질문에는 대리 응답자만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 당사자(본인)와 어떤 관계인가요? ① 부모 ② 교사(특수교사포함) ③ 활동지원사 ④ 기타()	
대리 응답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①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② 장애인 당사자가 어려서 ③ 기타()	

농어촌 장애인 생활실태

다음은 전라남도 농어촌 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된 영역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및 돌봄

1. 귀하가 생각하는 현재 건강상태는?

☐ ①	☐ ②	☐ ③	☐ ④	☐ ⑤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2. 일상생활 시 남의 도움이 어느정도 필요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음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없이 혼자 할 수 있음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함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함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함

3.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6번 문항으로)

농어촌 장애인의 복지 욕구

다음은 전라남도 농어촌 장애인의 연령별 장애복지 이용 여부 및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된 영역입니다. 해당하는 연령대 욕구서비스 문항에 이용여부 및 필요성 여부를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대별 욕구 서비스

1. 장애아동(만12세 이하)

이용 여부		항목	필요성 여부				
있음	없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	☐	조기개입(조기중재)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 (한글, 숫자 등 선행학습)	①	②	③	④	⑤
☐	☐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방과 후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또래 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신체기능 향상	①	②	③	④	⑤
☐	☐	가족지원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2. 장애청소년(만13세~18세)

이용 여부		문 항	필요성 여부				
있음	없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	☐	자립준비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자기결정 훈련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방과 후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또래 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주말 나들이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방학 기간 프로그램 (계절학교, 계절 캠프)	①	②	③	④	⑤
☐	☐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	☐	가족지원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3. 성인장애인(만19세~38세)

이용 여부		항 목	필요성 여부				
있음	없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	☐	자립지원 프로그램 (일상생활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	☐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	☐	평생교육 프로그램 (인문교양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①	②	③	④	⑤
☐	☐	문화여가 프로그램 (체험, 나들이)	①	②	③	④	⑤
☐	☐	케어서비스주간 및 단기보호)	①	②	③	④	⑤
☐	☐	가족지원 프로그램 (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 등)	①	②	③	④	⑤
☐	☐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생계비 또는 생필품 지원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	☐	후견지원사업	①	②	③	④	⑤
☐	☐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	☐	가족지원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4. 장년·노인장애인(만39세 이상)

이용 여부		항 목	필요성 여부				
있음	없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	☐	외출지원	①	②	③	④	⑤
☐	☐	이미용	①	②	③	④	⑤
☐	☐	세탁지원	①	②	③	④	⑤
☐	☐	현물지원	①	②	③	④	⑤
☐	☐	반찬지원	①	②	③	④	⑤
☐	☐	문화여가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	☐	의약품 및 방역관련 물품 지원	①	②	③	④	⑤
☐	☐	상담 및 안부전화	①	②	③	④	⑤
☐	☐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①	②	③	④	⑤

일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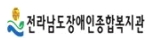
다음은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문항들은 지역 장애인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	만 세
3. 학력	① 초졸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초대졸(2년제) ⑤ 대졸(4년제) ⑥ 대학원 이상 ⑦ 기타()		
4. 결혼 여부	① 미혼 ② 유배우 ③ 사별 ④ 이혼 ⑤ 별거		
5. 가구 유형	① 1인가구(본인) ② 부부 ③ 부부(부모)+자녀 ④ 조부모+부부+자녀 ⑤ 한부모(모)+자녀 ⑥ 조부모+손자녀 ⑦ 형제·자매 등 ⑧ 기타()		
6. 가구원 수	(본인 포함하여) 명		
7. 경제 상태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8. 장애등록 유무	① 장애 미등록 (9번 문항으로) ② 장애 등록 (10번 문항으로)		
9.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	① 등록 절차에 대해 잘 몰라서 ② 주변에 장애 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③ 등록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④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⑤ 등록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서 ⑥ 기타()		
10. 장애 유형 (※ 중복장애일 경우 주 장애)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안면장애 ⑦ 신장장애 ⑧ 심장장애 ⑨ 간장애 ⑩ 호흡기장애 ⑪ 장루·요루장애 ⑫ 뇌전증장애 ⑬ 지적장애 ⑭ 자폐성장애 ⑮ 정신장애		
11. 장애 정도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②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12.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항목 (※ 해당하는 곳에 모두 체크 가능)	① 재활기관 이용료 ② 교통비 ③ 보육교육비 ④ 통신비 ⑤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유지비 ⑥ 보호·간병비 ⑦ 부모사후·노후 대비비 ⑧ 의료비 ⑨ 기타()		
13. 거주지역	① 곡성읍 ② 오곡면 ③ 삼기면 ④ 석곡면 ⑤ 목사동면 ⑥ 죽곡면 ⑦ 고달면 ⑧ 옥과면 ⑨ 입면 ⑩ 겸면 ⑪ 오산면 ⑫ 기타()		

-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설문지) 신안은 섬생활 항목 추가



신안 No

2023년 전라남도 농어촌 장애복지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응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설문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관한 '장애인정책 연구 사업'에 선정되어 「전라남도 농어촌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 조사」를 분석하여 농어촌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재해주신 정보와 설문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작성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3. 7.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전라남도 나주시 내영산1길 67

TEL . 061-332-4104 FAX . 061-333-9966

① 장애인 당사자 (본인)입니다 → **건강 및 돌봄** 으로 가서 설문조사를 시작하세요.
 ② 장애인 당사자 (본인)가 아닙니다 (대리 응답자) → **아래 박스 안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이 질문에는 대리 응답자만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 당사자(본인)와 어떤 관계인가요?

① 부모 ② 교사(특수교사포함) ③ 활동지원사 ④ 기타()

대리 응답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①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② 장애인 당사자가 어려서
 ③ 기타()

다음은 전라남도 농어촌 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된 영역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생각하는 현재 건강상태는?

☐ ①	☐ ②	☐ ③	☐ ④	☐ ⑤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①	□ ②	□ ③	□ ④	□ ⑤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음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없이 혼자 할 수 있음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함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함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함

① 있다 ② 없다(6번 문항으로)



섬 생활

1. 귀하는 섬에 생활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낀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교통(섬내, 섬외-해상교통)불편
- ② 생활필수품 조달의 어려움
- ③ 환경오염(악취, 쓰레기 등)
- ④ 생활비 부담(섬지역이라 특별히 더 드는 요금부담)
- ⑤ 의료시설(약국, 병원 등) 부족
- ⑥ 복지시설(복지관, 상담소 등) 부족
- ⑦ 문화·여가·체육시설(영화관, 공연장, 운동장 등) 부족
- ⑧ 교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부족
- ⑨ 기타()

2. 귀하가 거주하는 섬 지역의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만족 하지 않음	별로 만족 안함	보통	어느정도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환경·경관	☐	☐	☐	☐	☐
2 자연재해, 사고, 범죄, 안전	☐	☐	☐	☐	☐
3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	☐	☐	☐	☐
4 경제활동여건	☐	☐	☐	☐	☐
5 교육여건	☐	☐	☐	☐	☐
6 문화·여가·생활여건	☐	☐	☐	☐	☐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	☐	☐	☐	☐

3. 귀하는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주위의 차별로 인한 어려움
- ② 경제적 어려움
- ③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
- ④ 정신건강의 어려움(우울증, 스트레스 등)
- ⑤ 이성교제 및 결혼의 어려움
- ⑥ 재활치료(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 ⑦ 교육을 받기 어려움
- ⑧ 기타()

농어촌 장애인의 복지 욕구

다음은 전라남도 농어촌 장애인의 연령별 장애복지 이용 여부 및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된 영역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대별 욕구 서비스

1. 장애아동(만12세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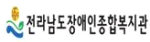
이용 여부		항목	필요성 여부				
있음	없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	☐	조기개입(조기중재)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 (한글, 숫자 등 선행학습)	①	②	③	④	⑤
☐	☐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방과 후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또래 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신체기능 향상	①	②	③	④	⑤
☐	☐	가족지원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2. 장애청소년(만13세~18세)

이용 여부		문 항	필요성 여부				
있음	없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	☐	자립준비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자기결정 훈련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방과 후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또래 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주말 나들이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방학 기간 프로그램 (계절학교, 계절 캠프)	①	②	③	④	⑤
☐	☐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	☐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	☐	가족지원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부록(FGI 설문지) 신안



2023년 전라남도 농어촌 장애복지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 조사(장애인분야 전문가 FGI 설문)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응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조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남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이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전라남도 농어촌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분석하여 농어촌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장애인복지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FGI 개방형 설문입니다.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바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재해주신 정보와 설문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작성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3. 8.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전라남도 나주시 대영산1길 67

TEL . 061-332-4104 FAX . 061-333-9966



1. 귀하는 평소 농어촌지역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얼마나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보조기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서)

예, 채수, 양치질, 화장실, 목욕, 옷입기, 집안에서의 활동이나 이동, 산책(집밖으로의 간단한 이동), 물건 사기(쇼핑, 장보기 등), 외식하기, 영화, 운동경기, 관람 등 친목활동, 취미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2. 귀하는 섬지역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어려움을 모두 적어주세요.

예 : 교통(섬내, 섬외-해상교통)불편, 생활필수품 조달의 어려움, 환경오염(악취, 쓰레기 등) 생활비 부담(섬지역이라 특별히 더 드는 요금부담), 의료시설(약국, 병원 등) 부족 복지시설(복지관, 상담소 등) 부족, 문화여가체육시설(영화관, 공연장, 운동장 등) 부족 교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부족 등

3. 귀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가지 정도만 응답해 주세요.

예 : 주위의 차별로 인한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
정신건강의 어려움(우울증, 스트레스 등), 이성교제 및 결혼의 어려움,
재활치료(의료서비스) 이용 어려움, 교육환경 등

4. 귀하가 생각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아동(12세 미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중요 순위별로 적어주세요.

예 : 조기개입(조기중재) 프로그램,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한글, 숫자 등 선행학습),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또래 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 향상 가족지원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5. 귀하가 생각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청소년(만13세~18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중요 순위별로 적어주세요.

예 : 자립준비 프로그램, 자기결정 훈련 프로그램,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또래 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 주말 나들이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방학 기간 프로그램(계절학교, 계절 캠프),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 가족지원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6. 귀하가 생각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장애인(만19세~38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중요 순위별로 적어주세요.

예 : 자립지원 프로그램(일상생활교육 등),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문 교양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문화여가 프로그램(체험, 나들이), 케어서비스(주간 및 단기보호), 가족 지원 프로그램(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 등),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생계비 또는 생필품 지원 서비스, 후견지원사업,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 가족지원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7. 귀하가 생각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장년·노인장애인(만39세 이상)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중요 순위별로 적어주세요.

예 : 외출지원, 이마용, 세탁지원, 현물지원, 반찬지원, 문화여가서비스, 의약품 및 방역관련 물품 지원
상담 및 안부전화,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등

8. 귀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어떤 장애인복지 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순위별로 5가지만 적어주세요.

예 : 장애인복지관, 주간기보호시설, 그룹홈, 재활병의원,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전용체육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성인을 위한 교육 시설 점자도서관, 수어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이동지원서비스센터,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 기관, 장애아동보육시설, 장애인자립지원센터



9. 질문항목 외에 첨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귀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전라남도 농어촌 장애인복지관 미설치지역에 대한 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발행인	김선구
편집인	정환율, 유은화, 김수정, 김광태, 김정아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제작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주소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내영산1길 67(삼영동 635-9)
전화	061) 332 - 4104
팩스	061) 333 - 9966
홈페이지	http://www.relife.or.kr/

* 이 책의 저작권은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